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지구적 정의에 대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장 유 경

지구적 정의에 대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

지도교수 박 성 우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및 외교학전공

장 유 경

장유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 원 장 최 정 운 (인)

부위원장 송 지 우 (인)

위 원 박 성 우 (인)

국문초록

정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저수준의 역량을 보장 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접근법은 지구적 정의담론의 새로운 이론체계로서 논의되고 있다. 역량 접근법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적 정의 공간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 집단을 역량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며 정의의 주체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 개념이 모든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거나 갖출 수 있는 역량의 집합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 존엄성의 다양한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역량의 개념과 핵심 역량 목록의 내용을 다양한 존엄성 관념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주장한 '직관적인' 존엄성의 개념은 사실 타인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다양한 존엄성 중 어떤 존엄성 원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지구적 정의의 이론체계로서의 역량 접근법 내에서 존엄성 개념이 기본 역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필자는 누스바움의 역량은 다양한 존엄성 개념과 연관되며, 특히 그 중 그녀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정 존엄성 관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존엄성과 역량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러나 존엄성 개념이 모든 국가의 정부는 '핵심 역량'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녀의 윤리적·정치적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접근법에서 존엄성 개념은 어떤 특정한 함의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존엄성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첫째, 누스바움 이론의 정치철학적 토대에서 그녀의 존엄성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그녀의 기본역량과 핵심역량은 다양한 존엄성 개념의 유형에서, 선천적 존엄성과 후천적 존엄성, 또는 상태 존엄성과 가치 존엄성이 어떻게 매개되어 두 개념이 독립적인 관계인지, 상호 개념의 근거를 제안하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구적 정의담론에서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도덕적, 정치적 원리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존엄성 기반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역량 접근법, 인간 존엄성,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지구적 정의

학 번 : 2014-2016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방법	10
4. 연구구성	13
II. 역량 접근법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14
1.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	14
2. 역량의 주요 개념 및 특징	19
1) 역량(capability)과 기능(functioning)	19
2) 역량의 단계적 구분	20
3. 10대 핵심역량 목록(Ten Central Capabilities List)	24
4. 정의(Justice)담론에서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의의	31
III. 역량 접근법에서의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	33
1. 존엄성 개념 일반	35
2.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 구성	39
1) 정치철학적 토대: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사상 결합	39
2) 롤스(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로의 이동	43
3. 역량과 존엄성 개념의 관계	51
1) 역량존중의 동기로서의 지위(status) 존엄성	52
2) 역량존중의 결과로서의 성취(achievement) 존엄성	56
3) 소결	57

IV. 지구적 정의관으로서 역량 접근법에 대한 평가	62
1. 다원주의 사회의 보편적 가치규범 설정	63
2. 정의의 주체 및 내용의 확장	68
1) 인간관의 재해석	68
2) 분배적 정의와 인정의 정의를 포괄하는 논의	69
3. 권리 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보완	73
V. 결론	75
참고문헌	80
Abstract	87

표 목 차

[표 II-2]	24
----------------	----

그림 목 차

[그림 II-3]	21
-----------------	----

I. 서론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현상들과 관련해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공동체적 위험들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구적¹⁾ 차원에서의 확장된 정의논쟁에 정치철학·도덕철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지구적 정의담론에서 존엄성 개념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정치적 자유주의 틀에서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의 도전에 공통된 가치규범으로서의 개념이다.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서로 다른 문화, 국적, 가치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데, 세계화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인이 믿고 있는 가치체계들로부터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정치적, 도덕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적 정의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인정하되 그 다양한 삶을 지탱하고 국가, 문화 간의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구적 공동성을 확보하자는 기획이다. 정의론은 세계에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정의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없는 비교는 서구적 가치의 우월성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a dignified life)을 위한 최저수준의 역량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²⁾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은 지구적³⁾ 정의

1) 본 연구에서 ‘국제’정의를 아닌 ‘지구적’정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교류차원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넘어서, 개인의 국가 및 초국가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에 따른 중첩적인 역할을 함축한다.

2)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 1947~)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로서 뉴욕 대학교에서 연극학과 서양고전학으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전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브라운 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로스쿨, 신학과에서 법학·윤리학 석좌교수로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

담론의 새로운 규범적 이론체계 또는 토대(framework)로서 논의되고 있다. 역량 접근법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여, 개인의 존엄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한다.

누스바움은 먼저 지구적 정의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 개인들의 집단을 역량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의담론의 주체에 그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인간 존엄성’ 개념을 핵심 원리로 설정하고, 모든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to develop)를 소유하거나 갖출 수 있는 역량의 집합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누스바움은 다양한 개념의 존엄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역량의 개념과 핵심역량 목록의 내용을 다양한 존엄성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왜 누스바움은 오히려 존엄성의 개념을 역량접근법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는지에 주목한다. 누스바움이 역량접근법에서 ‘인간존엄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주장한 것은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오래된 주제인 인간존엄성의 부활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지구적 정의관에 대한 대안적 이론체계로 역량 접근법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구화⁴⁾된 세계의 정의의 내용은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찰해가면서 새롭게 구성해가야 할 과제⁵⁾이며, 그 기저에는 최소한의 단일한 합의를 이룰 수

과 함께 GDP가 아닌 인간의 행복에 주목하는 ‘역량 접근법’을 창시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과 사회정의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자유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는 이 이론은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의 바탕이 되었다. 누스바움은 *Aristotle's De Motu Animalium*(1978)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280편이 넘는 논문과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 3) 본 연구에서 ‘국제정의(international justice)’가 아닌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교류차원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넘어서, 초국가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에 따른 중첩적인 역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 4) 본 연구에서 ‘국제적 정의(international justice)’가 아닌 ‘지구적 정의(global)’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교류차원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넘어서 초국가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에 따른 중첩적인 역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 5)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303; 롤스의 ‘정의론’ 대한 전반적 연구는 다음을 참조. Thomas Pogge, *John Rawls: His Life and Theory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있는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방법론적으로 역량접근법을 전개한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평등주의적 정의론을 논하면서 평등의 기준을 개인의 역량에 맞춘다. 개인의 역량에 맞추는 그 근거에 바로 인간존엄성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존엄성 개념이 의미하거나 실제로 수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판적인 조사를 피하면서 침투하는 담론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묵적인 가정 및 이해를 담고 있는 원칙 중 하나이다. 한편 존엄성의 직관적 개념은 분석개념이 아니라고 롤스는 지적한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 역시 직관적인 개념의 존엄성 개념을 상정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존엄성 개념 논의의 양상이 드러난다. 존엄성 담론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존엄성은 출신과 누구인지를 떠나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갖는 존엄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 타당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특정 환경과 문화에 놓여 있으며 특정 시간에 특정한 삶을 살아간다. 즉, 인간존엄성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특정 시공간과 상황을 이해하고 명시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편성은 현지화 되어야 하며 역사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특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현지화 될 수 있는가?

한 편의 연구에서 존엄성의 다양한 개념을 논의하고 모든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한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의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존엄성 개념에 한정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과 존엄성 개념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되며, 지구적 정의논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누스바움의 후기저작에서의 역량접근법과 존엄성의 논의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한 담론들에 한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구적 정의논쟁의 다원성 대 보편성의 논쟁에 존엄성의 직관적 개념이 아닌 역량으로 환원되는, 공통의 가치체계로 함의를 가지는 작업임을 보일 것이다. 이

논의는 단순히 누스바움의 주장에 근거한 개념작업 및 주장에 근거할 뿐 아니라 규범적 정당화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의 최근 정치적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확고한 입장 주장에 대한 검토의 의미를 지니며, 그에 의해 존엄성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지구적 정의 논쟁에서 보편성과 다원성의 논의의 해결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지닌다.

2. 선행연구 검토

인간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평등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 역량 접근법의 논의는 학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학제 간 연구가 용이한 역량 접근법의 유용성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아마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다작을 중심으로 개발경제학, 정치철학, 법학, 교육학, 윤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⁶⁾

센과 누스바움뿐만 아니라 잉그리드 로빈스(Ingrid Robeyns),⁷⁾ 사비나 알카이어(Sabina Alkire),⁸⁾ 데이비드 크로커(David Crocker)⁹⁾, 토마스 포기(Thomas Pogge),¹⁰⁾ 힐러리 퍼트넘(Hilary Putnam),¹¹⁾ 헨리 리차드슨(Henry Richardson)¹²⁾,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¹³⁾ 등의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하며 또한 실천적 영역에서의 적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호,¹⁴⁾

6)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에 비해, 역량 접근법의 후속 연구들이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고찰보다는 연구자의 불평등 해결, 장애인 차별 문제, 교육, 후생복지, 동물의 권리 등의 실천적 관심에 따라 역량 접근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경향으로 치우친 측면이 아쉽다. 로빈스는 역량 접근법이 학제적이라는 본성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논의가 분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Ingrid Robeyns,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 1 (2005), pp.93~114.

7) Robeyns, 2005 참조.

8) Sabina Alkire,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 1 (2005), pp.115-135.

9) David Crocker, "Functioning and Capability: The Foundation of Sen's and Nussbaum's Development Ethic," *Political Theory*, Vol. 20 (1992), pp.584~612

10) Thomas Pogge, "A Critique of the Capability Approach," in Harry Brighouse and Ingrid Robeyns (eds.), *Measuring Justice: Primary Goods and Cap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17~60.

11) Hilary Putnam, "Capabilities and Two Ethical Theor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9, No. 1 (2008), pp.377~388.

12) Henry Richardson, "Some Limitations of Nussbaum's Capacities," *Quinnipiac Law Review*, Vol. 19 (2009), pp.309~332.

13) Elizabeth Anderson, "Justifying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Justice," in Harry Brighouse and Ingrid Robeyns (eds.), *Measuring Justice: Primary Goods and Cap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81~100.

14) 이상호,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 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17호(2014), pp.283~316.

목광수¹⁵⁾, 허성범¹⁶⁾ 등의 역량 접근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에 걸쳐 연구되고 있으나, 주로 쉐의 역량 접근법의 논의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접근법의 논의를 통해, 지구적 정의담론에서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이론적·실천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존엄성 개념에 의한 이론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선행하는 기존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존엄성의 개념적 분석을 위해 사상사적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먼저, 칸트(Kant)적 영향을 부인하는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대표적인 예로 포모사와 맥켄지(Paul Formosa and Catriona Mackenzie)의 공동연구¹⁷⁾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에서 칸트적 개념을 부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칸트의 것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들은 칸트 존엄성 근거의 확대를 시도한 현대 칸트주의 학자로 대표되는 크리스틴 코스가드(Christine Korsgaard)와 앨런 우드(Allen Wood)와 누스바움의 개념적 차이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은 이론 내에서 핵심역량 목록과 동의반복적인 수사적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조적으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에 주목하여,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은 그녀의 역량 접근법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입장과 충돌한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트거 클라센과 마르커스 듀웰(Rutger Claassen and Marcus Düwell)의 공동연구¹⁸⁾가 있다. 그들은 누스바움의 2000년대

15)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철학』 제 104호(2010), pp.215~239.

16) 허성범, “역량과 인권: 쉐와 누스바움”, 『시민인문학』 제 25호(2013), pp.134~174.

17) Paul Formosa and Catriona Mackenzie, “Nussbaum, Kant and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Dignity,”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7, No. 5 (2014), pp.875~892.

18) Rutger Claassen and Marcus Düwell, “The Foundations of Capability Theory: Comparing Nussbaum and Gewirth,” i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6, No. 3 (2013), pp.493~51.

를 기준으로 구별되는 초기저작과 후기저작들에서 나타나는 존엄성 개념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초기의 존엄성 개념은 정치적(political)이기보다는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핵심역량 목록에 큰 수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본질주의(Essentialism)에서 벗어나 정치적 자유주의 입장으로 선회를 선택한 누스바움을 지적하며, 그녀의 역량 접근법은 ‘존엄성’ 개념보다는 ‘인간번영(human flourishing)의 좋은 삶’의 개념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보다는 ‘포괄적 자유주의’ 입장에 더 적합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누스바움의 철학적 배경에서 존엄성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량 접근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의 존엄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며, 수사적 수단으로만 파악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주목하여 대전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고 세부적 차원에서 대립하는 복합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구적 정의담론 공간에서 역량 접근법의 정치적·규범적·실천적 함의들을 다양하게 도출하고 다양한 존엄성 개념의 포착, 역량과의 관계 분석, 이 과정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구적 정의담론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의 필요성을 공유하지만, 자율성, 평등 등의 다양한 규범가치 중 하나로 간주하고, 예컨대 기존의 권리 기반 접근법에서 논의¹⁹⁾되어 온 가치들의 필요성을 인식한 수준에 머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세바스찬 무더스(Sebastian Muders)²⁰⁾는 자연법

<http://www.rutgerclaassen.nl/wp-content/uploads/2011/02/Claassen-Duwell-The-Foundations-of-Capability-Theory-pre-print.pdf> <자료검색일: 2017년 5월 8일>.

19) Alan Gewirth, “The Community of Rights,” in Edgar Morscher, Otto Neumaier, and Peter M. Simons (eds.), *Applied Ethics in a Troubled World*,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98), pp.225-235.; Bernard Williams, “Replies,” in J.E.J. Altham and Ross Harrison (eds.), *World, Mind, and Ethics: Essays on the ethical philosophy of Bernard Willi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20) Sebastian Muders, “Natural Good Theories 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25, No. 2 (2016), pp. 239-249.

적 선이론(Natural Good Theory)의 관점에서 누스바움의 다양한 존엄성 개념을 구별하며, 다양한 권리와 선과 연관된 논쟁에서 성공하면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과 존엄성이 훼손될 때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 역시 존엄성 개념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판적 접근들은 연구자들이 선택한 이론적 관점에서 누스바움의 논증에 반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 기존의 담론에서 경쟁하는 이론들의 보완적인 역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수정을 거듭하며, 다양한 이론들에 부분적으로 걸쳐져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의 역량과 존엄성 개념, 지구적 정의담론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존엄성 개념에 주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보다도 실천적 영역에서 적용, 동물, 장애인, 여성, 존엄사 등의 논의에서 존엄성 관념과 그 역할이 더 잘 포착되고 있다. 예컨대, 아샤 마르코바(Asya Markova)²¹⁾는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정상적 상태의 사람들을 개념적으로 포괄하는 존엄성 개념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한다. 마르코바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누스바움의 '직관적 존엄성 개념'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존엄성의 다양한 개념 중 그녀가 선호하는 개인주의적 존엄성 관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후속연구로 적절하지만, 지구적 정의를 주제로 두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의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

21) Asya Marokova, "The Concept of Dignity in the Capability Approach: A personalistic Perspective," submit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Values of the Human Person: Contemporary Challenges* (June 2011), pp.1~8.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존엄성 개념은 모호하며, 직관적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존엄성을 영위한 삶에 대한 주장과 핵심역량 목록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을 확인하고, 그녀의 정의론의 논리에서 일관성 및 적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역량 접근법에서 존엄성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존엄성 개념에 기초한 역량 접근법의 정의관이 지닌 함의 논의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가 심화될 때, 역량 접근법을 통한 지구적 정의론의 양질의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구적 정의담론의 이론체계로서 역량접근법의 정당성과 적실성의 의의 및 정당화를 존엄성 개념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이론배경, 논증방법, 논리적 일관성 확인 등을 탐색하는 ‘이론적 조사 방법’의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존엄성 관념을 규명하고, 역량 접근법에서 존엄성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직관적인 존엄성 개념’에 토대를 두고 충분히 이론화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들에 의해 역량의 동의 반복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접근은 후속 연구로의 방향성을 가진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은 어떠한 추가적인 윤리적 논증 없이 역량에만 호소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강력한 규범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존엄성 개념은 역량이 지닌 중요성과 기본적 역할을 수사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²²⁾해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존엄성 개념을 기초로 하는 분석적 접근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²³⁾

첫째,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과 존엄성 개념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스바움의 수많은 저작 중 2000년에 발표한 『여성과 인간개발』을 기준으로 이후의 저작들에서의 역량 접근법에 대한 논의에 제한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초기 저작들²⁴⁾은 ‘인간 번영

22) Beitz, 2013. “Human Dignity in the Theory of Human Rights: Nothing but a Phrase”

23) 존엄성 개념은 지구적 정의론의 핵심적인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로 누스바움이 원용한 존엄성 개념은 정의에 대한 수많은 법적 그리고 정치 이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정치이론에서 존엄성 개념을 핵심 구성 원칙으로 설정한 학자로는 누스바움 외에도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을 들 수 있다. Ronald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목광수, 2012, 재인용.

24) 역량 접근법에 대한 초기의 구상들은 “Nature, Function, and Capability: Aristotle on Political Distributio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Volume I: 1988, “Aristotelian Social Democracy,” in *Liberalism and the Good*, ed. R.B. Douglass et al. (New York: Routledge, 1990), 203-52.

(human flourishing)’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근거로 삼았다면, 2000년 이후의 저작들 특히, 『여성과 인간개발(*Women and Human Development*, 2000)』, 『정의의 최전선(*Frontiers of Justice*, 2006)』, 『역량의 창조(*Creating Capabilities*, 2010)』²⁵⁾에서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로의 입장이동을 선언하며, ‘인간 존엄성’ 개념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수정된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킨다. 수정된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a life with human dignity)을 영위하는 데에,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구의 대상을 수정된 역량 접근법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본 연구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사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불필요하며, 수정된 역량 접근법에 주목할 때, 존엄성 개념이 역량 접근법을 뒷받침하고 지구적 정의담론에서의 이론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존엄성과 역량의 관계와 역량 접근법에서 존엄성의 역할을 분석함에 있어, 누스바움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스토아학파,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들의 존엄성 사상을 토대로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을 규명하고, 그녀의 역량 접근법에서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존엄성 관념을 ‘선천적·후천적’, ‘지위(status)·성취(achievement)’의 유형으로 분류²⁶⁾하여 윤리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념을 고찰하고, 기본 역량 및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스바움이

“Non-Relative Virtues: An Aristotelian Approach,” in *The Quality of Life*, ed. M. Nussbaum and A. Sen (Oxford: Clarendon Press, 1993).

25) 추가적으로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2003), “Beyond the Social Contract: Toward Global Justice”(2004), “Human Dignity and Political Entitlements”(2008)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6) 그 것은 (1)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의 선천적 존엄성을 말한다. 다른 종(species)과 구별되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지 아닌지로 구분될 뿐, 누가 더 또는 덜 갖고 있는지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없는 존엄성이다. 그리고 (2)인간이 특정한 환경에 위치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화 과정에서 취득이 가능한 후천적 존엄성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남겨둔 ‘직관적 개념(intuitive idea)’의 존엄성 개념을 구체화하여 이론적, 실천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인 ‘존엄성에 기초한 역량 접근법은 지구적 정의 담론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문화다원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입장 그리고 최저수준 개념을 살펴본다. 역량 접근법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면서, 선택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와 실질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선택은 대부분 문화적·종교적·정치적 정체성에 따른 선택이다. 따라서 어떤 규범적 개념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개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존엄성 개념을 지침으로 활용할 때 전통 속에 담긴 다양한 입장을 평가할 수 있다.

4. 연구구성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역량 접근법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에서는 핵심역량의 목록의 제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센(Amartya Sen)의 역량접근법과의 차이에 기초하여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 핵심역량 목록과 최저수준 등의 주요 개념들이 어떤 의미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각 개념이 정의의 어떤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III. 역량 접근법에서의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에서는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정의 담론에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존엄성에 기초한 역량 개념의 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그녀의 역량 및 존엄성 개념 확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역량 접근법에서 기본, 내부, 결합역량들과의 관계, 핵심 역량 목록에 독립적인지, 근거가 되는지 그 존엄성 관념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한다.

“IV. 지구적 정의관으로서 역량 접근법에 대한 평가”에서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지구적 정의 담론에서 보편규범의 가능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서 확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규범은 부분적 정치적 선 관념으로서 다원주의 하에서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최저수준에 상응하는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 공적 개입을 전제함에 따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후견주의(paternalism)’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perfectionist liberalism)’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 결론”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들을 각 장별로 정리하여 요약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인간 존엄성’ 개념에 근거하여 역량 접근법

이 지구적 정의담론의 이론체계로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분배적 정의의 이상으로 간주되던 평등의 새로운 척도 제시, (2)권리의 이론적 토대 마련, (3) '중첩적 합의'에 의한 핵심역량 목록의 열린 결말 제시, (4)규범의 보편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 사이의 조화 가능성 제시, (5)전통적인 정의 담론과 차별화되는 현실적·규범적 정의관을 제시하며 기존 정의 담론의 한계 보완, (6)다양한 실천 학문들과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토대 마련 등이 논의될 것이다.

II. 역량 접근법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지구적 정의 담론에서의 핵심은 다양한 가치관과 선의 관념 (conception of the good)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정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때,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이론적 틀로서 갖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역량 접근법을 개념적·방법론적 기초 도구로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누스바움의 역량의 개념 검토 및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단계로서,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누스바움의 접근법이 어떤 요소적 측면에서 인간 존엄성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둘째,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정의의 담론의 어떤 규범적 요청에 참여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1.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²⁷⁾은 1980년 테너 강연에서 인도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이 발표한 “Equality of What?”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²⁸⁾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경제발전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주는지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성찰을 촉발시켰으며 여기에

27)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단일한 하나의 이론(theory)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이론들을 포괄하는 이론체계/framework)에 가깝기 때문에 역량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역량 접근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발경제학, 정치철학, 법철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교육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번역어가 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수많은 번역어 중 역량 개념이 가능성의 잠재적 능력, 실질적인 능력, 자유의 의미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capability’를 ‘역량’으로 번역한다.

28) Amartya Sen,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1980, pp. 195~220. 센의 역량 접근법은 개발경제학에서 개척되어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역량’은 국가 간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평가하는 비교 지표들의 묶음으로서 국가 개발 정책을 위한 논의에 활용되었다. Crocker and Robeyns, 2010, p.60. 이러한 역량 개념은 센을 통해서 경제개발 이론을 넘어 윤리학 및 정의론의 영역에 도입되었다.

는 특히 역량 접근법의 역할이 컸다.²⁹⁾ 또한 이러한 윤리적·철학적 담론을 넘어 위의 논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던 평등 및 정의의 담론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의 지배적인 평등 논의였던 롤스(John Rawls)나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논의가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켜 나갔다.³⁰⁾

이러한 역량 접근법은 이후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에 의해 사회정의 담론에서 철학적·이론적으로 발전되었다.³¹⁾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성(humanity) 연구로부터 역량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다지고³²⁾ 역량 개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열 가지 핵심 역량

29) “초기 개발 윤리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여 다양한 개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수혜자들을 분배과정에서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단점을 지녔다. 반면에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강조하지만 다양성을 강조하고 행위 주체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단점을 극복한다.”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 개발윤리와 관련 하에서 고찰,” 『철학』 제104집 (2010년 8월), pp.215-239, 각주 4; Des Gasper (ed.), *The Ethics of Development*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재인용.

30) 센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평등 개념은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을 무시하고 획일적 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인의 개별적 능력이나 사회환경 등의 차이가 초래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재화는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Amartya Sen, 1980. p218.

31)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1986년 세계개발경제연구소(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에서 이루어진 센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형성·발전되었다. 최근까지도 100여 편이 넘는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국문 번역을 통해 출간된 그녀의 저서로는 ‘사랑의 지식(Love’s Knowledge)’(1990), ‘시적 정의(Poetic Justice)’(1996),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For Love of Country)’(1996), ‘인간다움의 함양(Cultivating Humanity)’(1997), ‘성과 사회 정의(Sex and Social Justice)’(1998), ‘선의 허약성(The Fragility of Goodness)’(2001),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은둔(Hiding from Humanity)’(2004), ‘동물 권리(Animal Rights)’(2004),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Not for Profit)’(2010), ‘역량의 창조(Creating Capabilities)’(2011) 등 다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에 관한 저서 중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 사용과 이해가 잘 드러난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2000), *Frontiers of Justice*(2006), *Creating Capabilities*(2011)의 세 저작의 역량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분석 토대로 삼는다.

32) 누스바움은 센과 함께 역량 접근법에 대한 연구를 확립하는 무렵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역량의 어원을 찾았다(Sen, 1993; Nussbaum 1988의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역량 접근과의 연결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선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된 ‘capabilities of existing or acting’은 그리스어로 *dunamin*과 같은 의미인 ‘potentiality’ 즉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

목록'(Ten Central Capabilities List)을 제시하고 이를 정의 및 규범학 논의에 적용하였다. 정의론은 롤스 이후 분배정의론(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의 논쟁³³⁾이었다가 최근 평등, 인정 등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 논의되고 있다. 먼저 자원의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가 그것이 가족이거나, 국가이거나 간에 사회 내의 부, 자원, 기타 가치 있는 기회와 선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의롭게 분배해야 할 어떤 도덕적, 또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해 합당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센을 중심으로 한 “평등 논쟁(Equality of What?)”에는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평등주의적 정의’(egalitarian justice)의 추구가 곧 정의의 추구라는 가정 하에 논의되어 왔다.³⁴⁾ 정의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민들을 동등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칸트의 규범윤리학 이래 정치이론의 핵심이라고 말한다.³⁵⁾ 이전의 복지의 평등을 주장한 공리주의와 자원의 분배적 평등을 주장한 롤스의 정의론이 주류였던 정의담론에 센과 누스바움은 인간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각인의 역량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평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³⁶⁾

는 잠재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이 의미하는 범위는 잠재력이 포괄하는 의미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잠재력이라 번역하지 않는다. Sen, 1999 참조. 누스바움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반한 역량 접근법의 자세한 내용은 Nussbaum 1988 *Nature, Function and Capability: Aristotle on political distribution*; 1995 *Aristotle on Human Nature and the foundations of Ethics*) 참조.

33) 롤스의 정의론(1971)은 출판 이후, 정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토대로 자신들의 정의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Dean Hartley, “Critiquing Capabilities: The Distractions of a Beguiling Concept.” *Critical social policy*, Vol. 29, No. 2 (2009) 참조.

34) 평등과 정의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35) Ronald Dworkin, *A Matter of Principl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chapter 8. p.191.

모든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동등한 분배를 하는 것은 개인들 사이의 차이와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된다. 사회적 소외계층, 빈곤계층에게는 자원의 평등과 함께 ‘인간다운 삶(a truly human life)’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 기능과 역량이 평등하게 보유되는 것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원의 평등론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장책인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 접근법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역량 접근법은 현대 정의 담론에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36)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의 토대를 제공하는 관점이라는 특성 덕분에, 역량 접근법은 평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핵심 특징을 토대로 다양한 실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2. 역량(ability)의 주요 개념 및 특징

1) 역량(capability)과 기능(functioning)

역량 접근법은 정의의 척도로 개개인의 역량들(capabilities)을 본다. 역량(capabilities)³⁷⁾이라는 개념에는 능력(capacity)과 ‘기회’(opportunity)의 의미가 녹아 있다.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a dignified life)을 영위하는 데에,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able to do),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able to be)’를 묻는다.³⁸⁾

역량 접근법의 핵심 주장은 “개인의 삶의 질이 사람들의 ‘기능’(functioning) 및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은 한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이다. 각인들이 다양하듯이 한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치 있을 수는 없다. 누구에게는 더 가치 있거나 덜 가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의 조합과 중요성의 상대성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능들이 획득한 성취물이라면, 역량은 이러한 기능들을 획득할 수 있는 선택사항(options) 및 잠재적 능력(potential capacity)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은 개인의 행위들과 상태들의 조합으로 이뤄진다면 역량은 기능들의 집합 즉, 개인의 행위들과 상태들의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한다.³⁹⁾

37) 누스바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복수적(plural)이며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량들’(capabilities)이라는 복수형 명사는 사용한다. 개인적 삶의 측면들은 왜곡 없이는 단일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역량들 접근법’이라고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역량 접근법’이라는 표현이 통용되므로 본 논문에서도 역량 접근법으로 쓴다. 이 경우에도 누스바움이 사용한 원래 단어는 ‘역량들’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18, 한상연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의 번역어 참조, 쉐의 역량 중심 접근법에서도 역량의 다원성과 비환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복수형 명사를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고에서는 ‘역량’으로 통일한다.

38) Nussbaum, 2011, p.35; Sen, *Inequality Reexamin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Nussbaum, 2000, 2006 참조.

즉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역량이 충족된 사람으로 본인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나 기회를 지닌 사람을 뜻한다. 역량을 해석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면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과 ‘자유’로 오롯이 사람 자신의 몫이다. 누구나 기회와 실질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도, 누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역량 접근법은 사람이 자신을 규정할 역량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치 역시도 획일하지 않다. 결국 역량 접근법은 개별성, 선택,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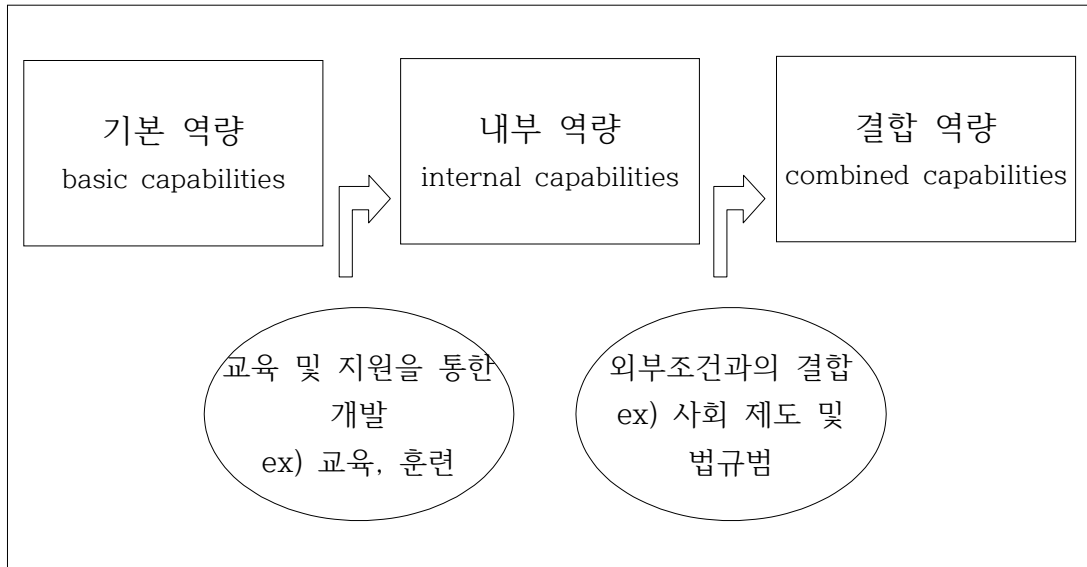
2) 역량의 단계적 구분

이하 <그림 1>에서처럼 누스바움이 구분하는 각 역량의 단계들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보다 분석적 이해를 위해 누스바움은 역량 개념을 세 가지 발전 단계인 기본역량(basic capabilities), 내부역량(internal capabilities), 결합역량(combined capabilities)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⁴⁰⁾ 이러한 역량의 역동적 이해는 각 발전 단계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39) 역량 접근법의 논의에 있어 보통 기능과 역량을 이해하고 구분하는데 혼동이 발생한다. 그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에 대한 두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평가되어야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식과 굶주림의 구분을 엄밀히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이 가치 있는 기능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martya Sen,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93) 참조.

40) Nussbaum, 2000, pp.84~85; Nussbaum, 2011, Chapter 2 참조.

<그림 1> 누스바움의 역량의 단계적 구분



역량의 구분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역량’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겸비한 내적인 기량(innate equipment)으로 좀 더 발전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이며, 도덕적 관심의 근거다. 예컨대 보고, 말하기, 듣기와 같이 선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감각능력, 언어사용, 사랑 및 감사, 실천이성, 상상력 등을 위한 기본능력에 해당하는 이러한 역량들은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능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역량은 스스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교육, 훈련과 같은 지원을 통해서 다음 단계인 내부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량을 타고나는지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행위주체성⁴¹⁾을 지닌 사람은 모두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의 ‘내부역량’은 개인이 스스로 필수적인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훈련되거나 개발되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행사 능력으로 대부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발된 상태를 말한다.⁴²⁾ 내적으로 충분히 성숙된 단계라 할지라도 외적인

41) 누스바움은 식물인간과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는 행위주체성이 발견되지 않기에 이들의 존엄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Nussbaum, 2011 참조.

조건들과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최종적인 기능의 실현이 달성된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은 이를 내부역량들의 내적 적합성(*innate fitness*)에 이르고 적합한 외부 조건들(*external conditions*)과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통해 최종단계의 ‘결합역량’이 된다고 설명한다.⁴³⁾ 내부역량과 결합역량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신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된 능력(내부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그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조건이 없어야 한다(결합역량)는 것이다.⁴⁴⁾

각 단계의 역량들은 역량들 간의 관계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국 다음 단계로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기본역량이 발전되어 성숙하게 발현된 내부역량이 되기까지는 외부 환경이나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 환경이나 지원에는 교육이나 훈련과 관련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또한 내부역량이 기능으로 발휘되는 결합역량이 되기까지는 성숙된 내부역량의 내적 부합 이외에도 외부조건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외부조건들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 제도 및 법규범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누스바움의 역량에 대한 이해는 ‘발전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청으로 연결된다. 누스바움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정책이나 제도는 각인의 기능실현보다는 역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발전가능성’은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정당화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능이 아닌 역량에 목표를 두는 “공공 정책은 각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각인의 역량의 원칙(*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을 존중해야 한다.”고

42) Nussbaum, 2011, pp.32~35.

43) 누스바움은 결합역량을 초기연구에서 외부역량(*external capabilities*)이라고 불렀으나 내부적합성보다는 외부조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결합역량으로 정정하였다. 그녀가 결합역량을 통해 재단하고자 하는 바는 ‘내부’와 ‘외부’ 상이의 적절한 결합이다. Nussbaum, 2000, pp.84~85; Nussbaum, 2011, p.32~36.

44) Nussbaum, 2011, pp.32~36.

답할 수 있다. 각인의 역량 원칙이란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각인의 역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삶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보편적일 수 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주장이 하나의 기초적 직관(basic intuition)임을 인정하지만 특정 형이상학이나 목적론적 관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도덕관(a freestanding moral idea)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⁴⁵⁾

더 나아가 누스바움은 이러한 도덕적 직관을 정치적 의무로까지 확장하며 제도적 구상을 모색한다. 이런 배경에서 누스바움은 제시하는 인간의 핵심 역량 목록은 중요한 규범적 함의를 가진다. 역량 구분에서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결합역량은 핵심 역량들(Central Capabilities)이라고 달리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적인 삶과 번영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이다.⁴⁶⁾

45) Nussbaum, 2000, 각주 150, p.5.

46) 누스바움과 센의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센의 역량 접근법이 각 사회가 따라야 할 기준 즉, 역량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정의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는 점에 온다. Nussbaum,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Vol. 9, No. 2-3 (2003).

3. 10대 핵심역량 목록(Ten Central Capabilities List)

이하 3절에서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10가지의 핵심역량 목록을 정리한다. <표 1>은 역량 접근법을 소개하는 누스바움의 여러 문헌들에서 자주 소개되는데, 이하의 표는 가장 최근의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1> 10가지 핵심역량 목록(Ten Central Human Capabilities List)⁴⁷⁾

1. 생명(life): 정상적인 수명까지 살 수 있을 것; 너무 이른 시기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이 심하게 감퇴되어 살고 있다는 의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망하지 않을 것.
2. 신체적 건강(bodily health): 건강한 재생산을 포함하여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 적절한 주거를 가질 것.
3. 신체적 완전성(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할 수 있을 것;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 성적 만족 및 재생산을 위한 선택을 위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4. 감각, 상상력, 사상(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기 위해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인간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즉 글씨 쓰거나 기초적인 수학이나 과학적 훈련을 포함하지만 결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일련의 적절한 (인성) 교육을 통해 익히고 함양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경험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스스로 선택한 종교적, 문학적, 음악적일등과 관련하여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정치적 발언과 예술적 발언 모두를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들로 자신의 정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즐거운 경험들을 가지며 이득 없는 고통은 피할 수 있을 것.

47) Nussbaum, 2011, p.18; 한상역 역, 역량의 창조(돌베개, 2015), pp.48~50.

5. 감정(emotions): 우리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재에 슬퍼할 수 있을 것;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리움이나 감사, 정당한 분노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자신의 감정의 발전이 두려움이나 근심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이 역량을 지지하는 것은 인간 연합의 형식들이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6.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선 관념을 형성하고 자기 삶의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숙고를 할 수 있을 것.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의례의 자유의 보호를 포함한다.)
7. 유대(affiliation): A. 타인들과 함께 타인들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것; 타인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 (이 역량을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유대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제도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자기존중과 모욕당하지 않기ye 대한 사회적 토대를 가질 것; 타인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 이는 인종, 성, 성적 지향, 민족, 신분, 종교, 출신국가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을 규정을 포함한다.
8. 인간외의 종에 대한 관심(other species): 동물, 식물, 자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연관되어 살 수 있을 것.
9. 놀이(play): 웃고, 놀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
10.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A. 정치적: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정치적 참여권을 가지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것. B. 물질적: (부동산 및 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타인과 평등하게 재산권을 가질 것; 타인과 평등하게 고용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것; 부당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자유를 가질 것. 노동에서, 실천이성

을 행사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상호 승인의 의미 있는 관계에 참여하면서, 인간으로서 일할 수 있을 것.

핵심 역량 목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생명>, <신체적 건강>, <감각, 상상력, 사상>이 있다.

둘째,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포함한다. <신체적 완전성>, <유대> 역량이 이러한 특징으로 함께 묶인다. <신체적 완전성>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한 내용이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은 장소 이동의 자유를 비롯하여 각종 학대에서의 자유까지 자신의 몸에 관련한 완전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대> 역량은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종류의 비차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있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한 사회 구성원의 내부역량이 결합역량으로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제시한다. <인간외의 종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역량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외의 종에 대한 관심> 역량은 인간이 동·식물 및 대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역량은 하부 범주로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지닌다. 전자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녀야 함을, 후자는 동등하고 실질적 기회를 기반으로 사적 재산 소유의 권리의 담보를 의미한다.

위의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된 핵심 역량은 사회구성원의 역량 발현을 위해 필요한 경제·사회·정치·환경과 같은 구조적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누스바움의 목록은 각인의 삶 내부에서 필요한 감성적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감정>, <놀이>, <실천이성>의 세 역량이 개인의 감성적 특성과 관련된 역량이다. 이를테면 <감정>은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과 배려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놀이>는 삶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실천이성>은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개인의 선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존엄하고 높은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강과 교육을 충분히 영위하고, 사회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있어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존재로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성적 측면에서도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외부 환경적 조건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위의 모든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그들 사이에 사전적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⁸⁾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원적’이며 ‘통약 불가능한’(non-commensurable) 선에 대한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각 항목은 이질적이며,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항목의 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더 많이 보장한다고 해서 어느 한 역량이 대체될 수 없으며, 모든 역량은 동등하게 가치 있음을 의미한다.⁴⁹⁾ 역량들은 기본적인 사회의 최소한의 이념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규범내용을 제공한다. 각 역량들은 완전히 보편적 가치를 가지며⁵⁰⁾, 보편주의의 유형에 속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그리고 “각 개인을 목적으로 추구하라”는 명령을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 가족, 혹은 국가나 다른 단체보다도 “각 개인의 능력이 원칙(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이 되어야 한다.

핵심역량목록들은 완전한 정의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역량의 요소들의 최저수준이라는 이념(the idea of a threshold level of each capabilities)”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 역량의 핵심 분야들 안에는 공적인 정치제도가 가져야 하는 정의의 필요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

48) 단, 누스바움은 사회적 상황 탓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핵심역량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줄 수 없을 때의 상황을 제시한다. 둘 이상의 역량이 상충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적어도 한 가지 역량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셴의 지적처럼 모든 역량들의 일등부터 꼴등까지 완벽하게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문제가 있다는 셴의 견해는 타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순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Nussbaum, 2011, p.51.

49) Nussbaum, 1997, p.286; Nussbaum, 2011, p.51.

50) Nussbaum, 2000, p.6.

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인간의 삶이나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그들 사이에 사전적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역량 목록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수준 개념이다.⁵¹⁾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부분적 사회정의 이론(a partial theory of social justice)을 표방한다. 따라서 모든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광범위한 사회적 최저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할 뿐이다.⁵²⁾ 실천과 이행의 측면은 사회정의 충족의 필요조건이다. 롤스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역량 접근법은 불평등 문제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최저수준의 기준의 충족을 넘어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저수준을 논할 때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따질 때, 얼마나 평등해야 역량이 적정한가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즉 인간 존엄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의 최저수준을 폭넓게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투표권이나 종교의 자유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누스바움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역량이 목록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열거한 누스바움은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의 요소들에 대해 “기본적인 인간 권원(entitlement)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기능할 기회(opportunity)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응되는 사회적·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요청이다.⁵⁴⁾ 누스바움이 발전시킨 역량 접근법은 센과 달리, 보편적이고 단일한, 인간의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⁵⁵⁾ 이는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첫째, 인

51) 어떤 역량이든 최저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최소주의적 관점은 사회정의의 관점을 지구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Nussbaum, 2011, p.51; Nussbaum, 2000, pp.81~86; Martha Nussbaum,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Fordham Law Review*, Vol.66, No.2 (1990b), p.286.

52) Nussbaum, 2011, pp.57~60.

53) Nussbaum, 2011, pp.58.

54) Nussbaum, 2000, p.84; Nussbaum, 2006, p.42; 김연미, 2009, p.431.

55) 두 학자 모두 역량 접근법이 적정 수준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기

간의 존엄성이다. 이는 칸트(Kant)와 초기 마르크스(Marx)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인간적인 것을 말한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적 본질주의(essentialism)이다. 본질은 존재하며 이는 인간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핵심 역량 목록은 범문화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며,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고(open-ended) 강조한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좋은 삶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좋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선 개념이 아닌 부분적인 선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핵심역량들은 즉 핵심 역량들은 각자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일 뿐이다. 이러한 목록을 제시하는 이유 역시 사람들이 각자 삶의 번영을 위해 핵심적이라 할 만한 역량들의 구체화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10가지 핵심역량들은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정치공동체는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사회적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역량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정의적 의무를 도출한다. 다시 말해, 누스바움은 이러한 핵심 역량 목록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직관적 개념(intuitive idea)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당화되며,⁵⁷⁾ 간접적으로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방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⁵⁸⁾

위해 추구해야할 기준으로서 역량의 목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학자는 차이를 보인다(Nussbaum, 2003; Sen 2004 참조). 누스바움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는 반면에, 센은 역량의 목록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별 사회의 공적 추론(public reason)에 맡겨져야지,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역량의 목록이 제시되면 오히려 역량 접근법이 강조하는 다양성과 자유와 같은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Sen, 1994, pp.78~79; Nussbaum, 2000, pp.13~14.

56) 그녀는 센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역량 집합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은 개인에게 불평등한 기회와 불평등한 선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Nussbaum, 2000 참조.

57) 핵심 역량 목록 설정이 가능한 근거로 누스바움은 어느 국가에나 인간 존엄성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사회의 최소한의 이념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규범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량의 목록들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58) 다원주의 사회에서 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핵심 역량 목록을 공통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 목록의 항목들은 다소 추상적이다. 이를 구체화하고

역량 접근법은 존엄성 개념으로의 매우 적절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다른 포괄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첩적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역량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에 누스바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실제로 발휘하거나 최소한 그럴 기회를 가져야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 또는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관념⁵⁹⁾은 아마도 모든 문명권에서 큰 어려움 없이 공통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그녀의 직관적 존엄성은 인권과 같이 서양 특유의 것이 아니라 여러 상이한 문화들 내부의 사유 전통들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한다.⁶⁰⁾

누스바움은 핵심 역량 목록에 대한 상세한 논증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인간 존엄성 개념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복잡한 분석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녀의 직관적 접근법은 다른 문화들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호소하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 사이에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그녀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선 관념, 서로 다른 정치관과 가치관을 소유하기에 존엄성에 대한 직관적 개념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상이한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충분한 설명은 누스바움 자신의 존엄성 관념(conception)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다양한 존엄성 개념(concepts)에 더 근접하다.

숙소할 여지를 각 국가의 헌법체계의 역할에 남기며,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은 중첩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59) Nussbaum, 2006, pp.155~157.

60) Nussbaum, 2000, pp.72~73.

4. 정의(Justice)담론에서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의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적 관심은 개인의 역량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내적 및 외적 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자각이야말로 현실의 부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금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매일 뿐만 아니라 실은 정의론의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량에 대한 접근은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에서부터 시작되며, 자유확장의 가능성을 통해 대안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누스바움의 정의론은 기존의 대항이론을 보완 혹은 대체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목적에 주목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헌법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⁶¹⁾ 둘째, 지구적 정의 담론에 새로운 가치체계로서의 규범이론으로 역량접근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⁶²⁾ 역량접근법 자체는 포괄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며 기본적 권한들(basic entitlements)에 관한 정치 원리다.⁶³⁾ 즉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 원리는 기존의 사회계약설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적 권리의 실행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영역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역량접근법은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적 논의이지만 동시에 모든 대상들에게 보편적인 존엄성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협상의 탁자에 앉을 때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실질적인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에 최저수준을 위한 ‘각인의 역량의 원칙’ 접근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61) 모든 국가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정치원리들을 사유하는데 정치적 목적의 중심에 인간의 역량과 관련된 보편적 규범들로 구성한다.

62) 역량 접근법은 공리주의에서의 ‘효용’이나 사회계약론 전통의 ‘자원’보다는 인간의 역량을 통해, 인간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수준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더 나은 척도라고 본다. Martha Nussbaum, “Human Functioning and Social Justice: In Defense of Aristotelianism,” *Political Theory*, Vol. 20 (1992) p.223.

63) Nussbaum, 2006, pp.69~76.

다.⁶⁴⁾ 첫째, 목적으로서의 역량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목적 공식을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역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으로 해석한다.⁶⁵⁾ 예컨대 인간 개개인이 어떠한 기능을 선택할지 하지 않을지는 오롯이 사람 자신의 몫으로 기회와 선택의 실질적 자유(substantial freedom)을 증진하는 즉, 현실적 기능이 아닌 역량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치원리이다. 이때의 규범적 요청은 도덕적 요청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 의무와 연관되어 역량 접근법의 특수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역량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과 문화의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한 맥락에 민감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인의 기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의 핵심역량 목록을 통해 각 공동체는 기본적인 환경의 범위를 정하고 각 영역의 사회적 최소한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로 이어진다. 역량 접근법은 정치적 관념에 있어서 도덕적 핵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여러 포괄적인 견해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으로서 의도된 것이다. 원리들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nation-state)를 주 분석단위로 삼고 있으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그 원리들의 이행은 해당 국가의 내부정책에 맡겨져야만 한다.

셋째, 가치다원주의(value pluralism)의 실현가능성이다. 사람마다 핵심역량을 달성한 정도는 양적,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일 수치 척도로 환원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의 기호, 지역, 문화와 같은 특징을 이해할 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64)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의 특징으로 다양한 실현가능성, 목적으로서의 역량,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와 실천이성, 그리고 실행의 제약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Nussbaum, 2011, pp.32~34.

65) Nussbaum, 2006, pp.5~6.

III. 역량 접근법에서의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함의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사회정의에 대한 이론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지구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인간 존엄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이론적 구성이다. 역량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인 필요한가?’를 묻고 있다. 이때 역량이 인간 존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역량과 존엄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누스바움의 ‘직관적(intuitive)’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개념 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혹은 동의반복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⁶⁶⁾ 누스바움 역시 자신의 논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 존엄성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존엄성에서 규범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자신의 목적 및 의도에 비해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⁶⁷⁾

역량 접근법이 지구적 정의 담론에 규범적 논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이론체계로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존엄성 개념에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모호한 방법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인 역량과 존엄성 개념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두 개념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누스바움의 ‘직관적’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누스바움은 본인의 존엄성 개념이 칸트의 존엄성과 다르다고 한다.⁶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토대로 역량을 이론을 발전시킨 누스바움은 칸트의 이성의 환원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성

66) Formosa and Mackenzie, 2004, pp.1~2; Claassen and Duwell, 2012, pp.2~3; Bernardini, 2010, p.45.

67)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을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해 전후 맥락을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적용한다면 자의적이고 일관성을 잃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Nussbaum, 2011, p.40.

68) Nussbaum, “Human Dignity and Political Entitlements”, pp.352-357.

(animal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주목하여 인간 번영의 관점에서 존엄성을 근거한다.⁶⁹⁾ 그러나 동시에 개인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존엄성 사상의 대표적 원칙 역시 수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은 다양한 존엄성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 역량 접근법의 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철학적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그녀의 존엄성 관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둘째,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초기 저작들과 후기 저작들 간에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핵심 역량의 목록과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좋은 삶에 대한 의미가 초기 저작의 ‘참으로 인간다운 삶(a truly human life)’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a dignified human life)’에 필요한 것으로 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⁰⁾ 또한 존엄성 개념의 사용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로의 이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인간 존엄성 개념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의 근대적인 범주를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하고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어떤 역량이 주요한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존엄성이 역량에 우선되는지, 역량의 결과로 존엄성을 성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역량이 인간 존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존엄성 개념을 식별하고,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69) Nussbaum, 2006, pp.87-92.

70) Nussbaum, 2006, p.161; Nussbaum, 2000 참조.

1. 존엄성 개념 일반

존엄성의 주요한 기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라틴어 'dignus'와 'dignitas'에서 유래되어, 고대 로마와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존엄(dignity)'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 또는 국가기관의 권위의 존중 및 존경 받을만한 가치를 의미하였다. 이때의 존엄성은 절대적이고 희소한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⁷¹⁾ 한편,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적·종교적 관점이 아닌,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으로 변모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으로 본격화되었다.⁷²⁾ 이러한 관점은 후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게로 이어져 자율적인 존엄 개념이 설정되었다. 그는 인간은 이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며,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³⁾

존엄사상이 철학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스토아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에, 자연법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칸트의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간존엄은 근대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20세기 이후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세계대전에서 자행된, 대량학살, 고문, 테러, 탄압 등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진지한

71) 고대사회를 지탱한 신분제로 인해서 존엄의 주체가 아테네 자유 시민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최소한 공동체 주요 담론의 대상이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J. P. Johnson, 1971, "Human Dignity and The Nature of Society," *Philosophy Forum*, Vol. 10, pp.213~231 참조.

72) 이러한 흐름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등에 의해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의미가 구체화되며, 이 시기의 존엄성은 국가의 부수물이 아닌 존엄하고 신성한 개체를 설정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처분 및 동의권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사회계약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Hayry M, "Another Look at Dignity," *Cambridge Quart Healthcare Ethics*. 2004;13:7-14.

73) Meyer MJ, "Kantian Dignity and Modern Political Thought," *History Euro Ideas*. 1987;8:319-332.

성찰을 가져왔다.

오늘날 인간 존엄성은 인권 보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논의를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된 틀이며,⁷⁴⁾ 세계 각국의 헌법과 여러 가지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1948년 국제연합(UN)에서 선포한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에서는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고 명시했고, 제 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⁵⁾. 이 선언은 1966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통해 성문화되었다. 전문에서는 “인간의 여러 권리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서 유래 한다”⁷⁶⁾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인권적 시각을 가진 규정들이 각 국의 헌법에 명문화되거나 독립된 인권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성 개념이 사회적 맥락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⁷⁷⁾

이러한 사상적 발전을 거쳐, 인간을 존엄한 가치대상으로 여기고, 모든 인간이 최소수준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인류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어 오늘날 학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존엄성의 내용을 주장하며,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이 공유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컨대 존엄

74) Rosen, “Dignity”, pp.25~26.

75) See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76) See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77) 즉, 존엄성 개념의 등장을 통해 국가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현과 성취를 위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기본적인 자세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성의 근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볼 수 있고, ‘일부의 사람만 존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존엄성의 의미는 (1) 복잡하고 다면적이다.⁷⁸⁾ (2)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고,⁷⁹⁾ (3) 공적인 동시에 사적이고,⁸⁰⁾ (4) 개인적이면서 집합적이고, (5) 내적이면서 외적이다. 뿐만 아니라 존엄성은 인간이 타고난 것으로 묘사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정되거나 파괴된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의 내재적인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된다. 존엄성은 다양한 하위 개념들을 가지지만, 여전히 통일된 개념적 정의는 성립되지 않았기에, 존엄성 개념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존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존엄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존엄이 보편적 규범이상으로 기능하는 이상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인간존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본질적 가치, 둘째, 인간의 자율성, 셋째, 공동체적 가치. 여기서 공동체적 가치는 일정한 공익을 위해 두 번째의 인간의 자율성을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 관점에서 위 세 가지 내용은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민족성, 종교 또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0세기 말부터 문화적 다원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이 요청한다는 인식이 널

78) Feldman 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Part I," *Public Law* (Winter). 1999:682-702.

79) Meyer MJ. "Dignity, Rights, and Self-Control," *Ethics*. (1989), pp.99, 520-534.

80) Andorno R, "Human Dignity and the UNESCO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Discussion paper. Cardiff Centre for Ethics, Law and Society; 2003; Paust JJ, "Human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A jurisprudentially based inquiry into criteria and content," *Howard Law J*. (1984), pp.146-225.

이 확산되어 왔다. 이로부터 소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는 다수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통용되어 왔다.⁸¹⁾ 이 같은 논리는 인간존엄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인간존엄은 본질적으로 인간애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인간존엄은 공동체의 목적을 설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이와 같은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념에 따르면 국가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선(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는 상충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의 개인과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⁸²⁾

이렇게 보면 자율성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동체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첫째, 타인의 기본권과 인간존엄의 보호. 둘째, 자신의 기본권과 인간존엄의 보호.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의 보호. 요컨대 공동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인간존엄을 이해한다면 인간존엄이 기본권 제한원리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⁸³⁾

81)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1996) pp. 8~14.

82) John Rawls,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7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1 (1987), pp.1~3.

83) Deryck Beyleveld and Roger Brownsword,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Human Genetics," *Modern Law Review* Vol. 61 (1998), pp.665~68.

2.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 구성

존엄성 관념은 단일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관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의 역량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인 방식을 스토아학파와 칸트의 존엄성 개념의 수용을 통한 사상적 결합으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역량 접근법을 수정하는 데 철학적, 이론적 뿌리를 갖는다고 밝힌다.⁸⁴⁾

1) 정치철학적 토대: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사상 결합

누스바움은 본인의 존엄성 개념은 칸트의 존엄성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역량과 존엄의 환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의 역량에 대한 이해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며, 제한된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토아학파의 존엄성 개념의 수용을 통해 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성과 동물성(animality)을 철저히 통합된 것으로 이해한다.⁸⁵⁾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마르크스가 인간은 다양한 생명활동이 필요한 피조물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토대로 누스바움은 합리성을 동물성의 한 측면으로 간주한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은 동물적 성격과 이성적 성격 모두를 중시한다. 누스바움은 합리성을 보통 동물들도 갖는 하나의 기능(functioning)으로 보며,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합리성은 ‘신체’(body)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성은 그 자체가 시간

84) 현대의 계약사상적 실천철학과 칸트주의 도덕철학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존재, 곧 자유주의를 갖는 인간에 존엄성을 근거 짓는다. 한편, 현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좋은 삶(the good life)’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상응하는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고 본다. 누스바움의 존엄성은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입장으로 봐야 하나, 각 입장의 후속 연구들 중 방향은 다르나 내용은 유사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 이러한 사상적 결합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Nussbaum, 2000; 2006; 2010; Sen, 1993 참조.

85) Nussbaum, 2006, p.159.

의 흐름 속에서 상승과 하락의 순환을 한다. 상처받을 가능성, 죽을 가능성 또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스바움은 합리성을 이상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과 대척되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개념은 개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개체가 핵심역량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존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가져야 하는 도덕적 지위(moral status)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누스바움의 도덕적 지위 토대는 앞서 검토했던 성원권(membership)과 합리성,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핵심역량들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실천이성인 합리성뿐만 아니라 감정 등의 쾌고 감수 능력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성원권은 역량이라는 두 번째 조건에 종속된 개념이다. 누스바움은 어떤 개체가 자신의 기능(functioning)과 역량을 고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간주한다.⁸⁶⁾

그렇다면 역량 또는 존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전자에서 살펴보고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상을 추가 반영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모든 인간은 인간 종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에, 역량목록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량목록의 최저수준이 보장될 때 인간은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두 관념은 서로 다른 존엄성을 논증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한 역량접근법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적 존엄성에 대한 성찰은 인간성의 공통분모가 단지 이성뿐인가라는 관점에 도전하고, 지구적 정의로의 확장에서의 보편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역량접근법에서 누스바움은 기존의 인간관을 수정하

86) Nussbaum, 2006, p.365. 누스바움의 성원권 논의는 역량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도덕적 지위의 차이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 신-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관을 취하며,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할 수 있는(capable) 동시에 필요로 하는(needy) 존재다. 이는 칸트의 ‘이상화된 합리성(idealized rationality)’의 가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비록 누스바움은 칸트의 합리성이라는 인간관을 비판했으나, 그것은 이성능력이 덜 발달되었거나 없는 인간에게도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성능력의 가치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이성능력은 인간에게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도덕적 능력(moral capacity) 또는 합리성의 소유로 보았고, 이것으로 인간성과 동물성을 구분하였다.⁸⁷⁾ 이러한 가정은 인간성의 핵심에서 필요로 함-동물성에 속하는-을 간과하고 인간을 자기 충족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의 삶에는 극심한 의존기간이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인간을 합리성과 취약성을 모두 가진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은 취약성의 기간을 가진 동물적 존재이고, 동물성 중 하나의 측면인 합리성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는 일시적인 것이다.

둘째, 인간은 개별적(separate)인 동시에 공동체적(communal)이다. 이는 사회계약론 전통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가정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는 이타성을 설명할 수 없고, 무언가 기여할 것 없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인간을 사회적 가치(good)를 추구하고 타인과 많은 목적들을 공유하는 정치적, 사회적 동물로 본다. 인간은 상호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묶여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⁸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의하면, 훌륭한 정치제도는 마땅히 개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⁸⁹⁾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바로 이 생각을 역량접근법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87) Nussbaum, 2006, p.159.

88) Nussbaum, 1992a; 2006; 2011.

89) Nussbaum, 2006, pp.85~86.

나간다. 역량접근법은 각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누스바움은 존엄성의 구체적 의미를 마르크스로부터 빌려온다. 마르크스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의 자질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단 하나의 척도로 삶의 질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빈약하기 그지없는 평가가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다양한 복수의 삶의 활동을 추구할 때 삶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다.⁹⁰⁾ 어느 누구도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 구성원들이 나름의 역량을 발휘하여 각자 품위 있고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와 같은 생각을 지구적 정의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이론에 반영한다.

리처드 아너슨(Richard Arneson)은 역량 접근법이 완전주의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⁹¹⁾ 역량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논의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누스바움은 자신의 논의가 아리스토텔레스 논의에 기반을 둘을 명시하고 있으며, 2장 3절에서 논의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역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아너슨은,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간섭주의적일 수 있는 기능 중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건강한 삶의 방식을 국민들이 취하도록 정부는 강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한다.⁹²⁾ 하지만 역량 접근법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⁹³⁾ 그러나 누스바움은 선택의 자유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를 설정한다. 그녀는 존엄성과 존중의 개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respect)과 무-굴욕(non-humiliation)의 대우를 받을 기회는 선택의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과의 연결선상에서 마르크스

90) Nussbaum, 2006, pp.74, 85, 159.

91) Arneson, 2000, p.46.

92) Nussbaum, 2011, p.26.

93) Nussbaum, 2011, p.26

(Marx)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한다.⁹⁴⁾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진정한 인간(truly human)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칸트(Kant)의 전통과는 달리 물질적 토대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⁹⁵⁾

2) 롤스(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로의 이동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이 정치적 자유주의 진영에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보이지만, 이 절에서는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요소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로의 이동⁹⁶⁾에 따른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역량접근법과 인간존엄성 개념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누스바움의 주장을 논증하고자 한다.

10대 핵심역량목록의 최저수준(threshold)을 제안함으로써 보편성의 토대를 마련한 누스바움은 다원주의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을 채택한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학적 반성에 뿌리를 내린 좋은 삶의 윤리사상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고자 이로부터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좋음의 내용의 규정을 도출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적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녀의 관심사는 실제 존재론적 본질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근본 방식에 대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그녀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개념을 견지하며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차이 이론적 비

94) Nussbaum, 2000, p.73.

95) Nussbaum, 2000, pp.73~75.

96) 역량 접근법은 그 관념에 있어서 여러 번의 전환을 겪었다. 가장 잘 알려진 반복은 마사 누스바움의 접근법이다. 그녀의 버전은 정의로운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원이 아니라, 역량의 명시된 목록을 사용함에 있어 차별화된다. 그녀의 역량 접근법의 목록 사용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역량 선택의 정당화 수단이다(Robeyns 2005; Nelson, 2008; Claassen and Duwell, 2013) 가장 최근의 역량접근법의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녀는 원초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수단에서 거리를 두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성공했다고 비판받는다. 앞서 서술한 학자들은 누스바움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 수단에서 역량 목록을 정당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녀는 비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표현된 이러한 좋은 삶의 윤리학을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좋음(the good)이 잘삶(well-being)의 핵심영역을 포괄하는 한, 내용적으로 규정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막연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상세 목록을 허용하며, 따라서 좋은 삶⁹⁷⁾의 윤곽을 제시할 뿐이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기본적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다원주의의 도전에 대항하고자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떠나 인간존엄성과 정치적 자유주의 개념의 사용을 선택한 것이다.

누스바움은 역량접근법이 자유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든다. 품위 있는 사회의 정치적 원리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을 존중하며 포괄적 교설 간 중첩적 합의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누스바움은 역량접근법을 삶의 가치나 질(value or quality of life)에 관한 포괄적 이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각의 포괄적 교설이 나름의 용어와 개념으로 보편적 삶의 가치나 삶의 질을 이론화하게 내버려둔다. 누스바움은 센의 역량접근법을 롤스의 정의론에 빚대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인데, 이 과정에서 롤스의 분배정의와 계약론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자유주의는 수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아마도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센과 마찬가지로 합의의 실천성을 고려하여 특수성 혹은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채택한 의도로 보인다.

롤스는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갈등적이고 파편화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어떻게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한다.⁹⁸⁾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

97) 누스바움은 초기 저작에서 ‘truly human life’에서 ‘dignified life’로 옮겨감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의미한다.

98) 롤스는 지구적 정의의 기초로서 인권을 제시한다. 그것은 특정 지역에서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도덕적 영향력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적 개념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누스바움의 지구적 정의관은 규범이론으로서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있는 반면, 그 실효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규범적 논의들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공적이성(public reason)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사회는 보편화하며 허약한 사회는 특수화한다는

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 관념들(conceptions of the good)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과 호혜성 및 상호존중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질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이러한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역량이라는 보편적 규범의 설정과 국가마다 혹은 그 문화에 따라 내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다원성의 현실적 인정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롤스는 『정의론』의 도덕철학에 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자신의 논지를 보다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정교화하려는 노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정의론』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로서 합리성에 의거해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리성(the rational)과 합당성(the reasonable)의 결합에 근거해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통한 정의 원칙의 정당화에 관심을 기울인다.⁹⁹⁾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종교관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양립불가능하기도 하며 심지어 상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규범을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한다.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¹⁰⁰⁾은 하나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도덕이론이라기보다, 정치영역에만 관심을 두는 규범이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시도하는 자립적 견해(free-standing view)로서 제시된다.¹⁰¹⁾

말이 있듯이, 오늘날 지구적 정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국가주의의 문제이다.

99) Rawls, 1993, pp.48-54.

100) Patrick(1990)은 “Near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or Metaphysical” 논문에서 정치적 정의관과 형이상학적 정의관의 차이를 요약하였다. 첫째, 철학적 의존성에서, 형이상학적 정의관은 보편적 진리나 인간의 본성과 자기 동일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적 형이상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정의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적·종교적·도덕적 교의들로부터 독립적이다. 둘째, 정당화의 기준에서, 형이상학적 정의관은 인식론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기본적 전제나 공리들의 진리를 통한 정당화를 시도하나, 정치적 정의관은 실제적인 것으로 공공적 합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셋째, 적용의 범위에서, 형이상학적 정의관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역사적 사회들에 적용이 되나, 정치적 정의관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근대적 입헌민주사회에만 적용된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원주의 현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위(priority of right)’의 개념을 들어 ‘옳음’은 다양한 ‘좋은데’에 관한 이론, 교리들의 존재와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좋은데의 개념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는 시민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특정의 포괄적 교리를 전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제약을 옳음의 우선성이라고 한다.¹⁰²⁾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한¹⁰³⁾ 그러나 서로 상충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과 교의들로부터 안정되고 실행가능한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¹⁰⁴⁾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은 “보편적 진리나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자기 동일성에 대한 주장”을 회피하므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관이라고 주장한다.¹⁰⁵⁾

누스바움에게 있어,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 개념들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인간존엄성의 이념과 호혜성 및 상호존중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위한 이념이다. 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 주장의 근거는 바로 다양한 교설의 보편적 가치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스바움은 우선, 자유와 평등이 역량 접근법에 내재된 가치이지만, 존엄성을 근거로 인간관을 설정하고, 후천적 존엄성에 있어서는 핵심역량의 최저수준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의 문제는 각 국가의 합의에 맡긴다.

누스바움이 『역량의 최전선(*Frontiers of Justice*)』에서 밝힌 대로 역량 접근법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포괄적 교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량 접근법을 세계주의의 한 형태로 여기는 것을 누스바움은 강력하게 거부한다. 역량 접근법은 국내적 정의뿐만 아니라 지구적 정의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최우선으로

101) Rawls, 1993, p.13.

102) John Rawls, *Theories of Justice*, pp. 173~176.

103) 다원주의의 실상은 단순 다원주의(simple pluralism)가 아니라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에 관한 사실로서 자세한 내용은 John Rawls, “The Idea of Overlapping Consensus,” (1987) p.4. 참조.

104) Rawls, 1993, pp.xv-xix, p.10

105) Rawls, 1985, pp.223-224.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국가, 지역, 종교, 가족이 아닌 인류 전체여야 한다는 포괄적 윤리 이론이 세계주의를 역량 접근법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은 잘못이다. 세계주의자는 누스바움의 핵심역량 목록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일차적으로는 한 국가의 시민, 이차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와 시민)은 10대 핵심역량의 최저수준 이상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가 꼭 세계주의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¹⁰⁶⁾

누스바움은 기존 역량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과 양립될 수 있으며, 자아나 개인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 또는 인식론적 관점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역량의 목록은, 품위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관해 우리가 공유하는 숙고된 도덕적 판단이나 정보에 근거한 직관으로 그녀가 간주하는 것에 기초한다.¹⁰⁷⁾ 그녀에 의하면, ‘참으로 인간적인 기능’(truly human functioning)의 핵심목록으로 언급된 역량들을 정당화하는 자리에는 어떠한 철학체계나 복잡한 윤리교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인간존엄성 개념이 직관적(intuitive conception)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¹⁰⁸⁾ 이 개념이 서양 특유의 것이 아니라 여러 상이한 문화들 내부의 사유 전통들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⁹⁾

그녀는 자신의 목록에 대한 상세한 논증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의원칙들과 개인 및 사회의 이상을 서로 연결하는 - 예컨대,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같은 - 구성주의적 절차와 유사한 어떤 것에 대한 상세한 논증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누스바움은 인간존엄성, 평등한 가치,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개념들을 자신이 제안하는 핵심역량목록과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 개념들에 대한 어떠한 다른 복잡한 분석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녀의 직관적 접근법은 아마도 다른 문화들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호소하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 사이에서 중첩적

106) Nussbaum, 2011, pp.112~114.

107) Nussbaum, 2006, pp.155~157.

108) Nussbaum, 2006, p.155.

109) Nussbaum, 2000, pp.72~73.

합의에 도달하려는 그녀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누스바움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최저수준, 정치적 자유주의의 개념의 사용을 선택한 것이다.¹¹⁰⁾

역량 접근법은 사회정의는 물론 지구적 정의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최우선으로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국가, 지역, 종교, 가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여야 한다는 포괄적 윤리 이론인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을 거부한다. 모든 시민이 핵심 역량의 최저수준 이상을 누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량 접근법은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정치적 교설이다. 그 어떤 포괄적인 윤리적 교설도 권장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서도 안 된다. 역량 접근법은 현대 세계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적·세속적 교설의 다원성 존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누스바움은 롤스를 따라 자신의 인격(person) 개념이 모든 관습적인 도덕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견해들 사이에서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자립적인 견해’(free-standing view)라고 주장한다.¹¹¹⁾ 그녀는 역량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과 양립될 수 있으며, 자아나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또는 인식론적 관점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역량의 목록은 존엄한 최소한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관해 우리가 공유하는 숙고된 도덕적 판단이나 정보에 근거한 직관적 존엄성 관념에 기초한다.¹¹²⁾

한편, 모든 정치적 견해는 도덕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해야 하고 공정함, 존엄성의 동등한 존중 같은 명확한 가치를 정치적 원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 역시 인간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 관념들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지만, 정치적 원리의 기초로서 인간 존엄성의 이념을 존중하는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질서의 이념이다.

110) Nussbaum, 2011, pp.34~35.

111) Nussbaum, 2006, pp.304~305.

112) Nussbaum, 2006, pp.155~157.

정치적 정의관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도 담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롤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¹¹³⁾과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관을 근본 개념으로 둔다. 반면 누스바움의 경우 모든 인간은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의 권리가 있다는 인간관과 핵심역량의 최저수준의 사회관을 지닌다.

요약하자면, 누스바움은 변영 버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을 대표하는 기능을 식별하고,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며, "정의의 국경"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잘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가 아니라 내재적 본질주의가 시도하는 변영의 언어로 밀입국하지 않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누스바움은 본질주의 없는 보편주의자로 남을 시도를 한다.

누스바움은, 1998년 논문 “Political Animals: Luck, Love and Dignity”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약속을 자세히 설명했다. 내 지식으로 볼 때, 이것은 내재적 본질을 배제할 필요성 이외에도 역량의 틀로서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실로 시작한다. 민주사회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Hume적인 사유),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교리가 경쟁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포괄적인 교리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 개념을 추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회 내 다원주의를 수용한다고 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정치·도덕철학적 정의론을 제시하기 위해 특정 형이상학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고도로 추상화한 합의 방법을 사용한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속 정치적 자유주의는

113) Rawls, 1993, p.19.

그 역할 상 가치에 관한 종합 설명을 배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교를 목적이라 한 것이라 해도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인간이라면 불연과 갈등을 넘어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 가능한 공동 지평을 이끌어내야 한다.

3. 역량과 존엄성 개념의 관계

누스바움은 역량과 존엄성이 상호 연관된 개념임을 주장하는데, 특히 핵심역량 목록이 ‘존엄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장 즉, 개인에게 목록의 항목들의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다.¹¹⁴⁾ 그런데 존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에, 존엄성 개념에 대한 설명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내에서 존엄성 역할을 설명하는 데, 내적 갈등을 찾을 수 있으며 철학적 함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특정한 두 유형의 존엄성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두 존엄성 사이에서 모호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이 구별에 비추어 누스바움의 연구를 해석하는 것은 누가 존엄성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존엄성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에서 그녀의 대답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¹⁵⁾

먼저, 선천적 상태(status)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니는 것이나, 후천적 성취(achievement) 존엄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된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은 결과적으로 이 양자를 합산해서 논의해야 한다. 누스바움은 기본역량, 내적역량, 결합역량 세 가지로 역량을 설명할 때 존엄성의 종합적 관점에 기초하여 환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정의의 주체의 범주에서 배제한 장애인, 외국인의 존엄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선천적 존엄성을 과소평가하고 각자의 후천적 존엄성을 과대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올바른 방법은 선천적 존엄성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되(합리성에 제한한 인간관 극복이 관건이고 이에 대한 대답에 해당한다) 후천적 존엄성에도 한계를 설정하여 (누스바움은 내적역량과 결합역량의 구분을 통해 한계 설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위에 다시 각자 제각각인 후천적 존엄성을 합산함으로써(결합역량의 최소수준 보장),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책임’ 사이의

114) Nussbaum, 2006, p.174.

115) Formosa and Mackenzie, 2014 pp.877-878.

균형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모든 인간의 원초적 존엄성, 흉악범에 대한 형벌의 정당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 심신장애자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지구적 사회정의 담론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역량존중의 동기로서의 지위(status) 존엄성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주장이다. 선천적 존엄성과 관련하여 누스바움은 최소한의 행위자인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덕(virtue)에 의해 동등한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그녀는 ‘처음부터 인간 존엄성은 행위자인 모든 사람, 즉 법과 제도로부터 동등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안에서 평등하다고 말한다.¹¹⁶⁾

한편 모두가 존엄하나 존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모두가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하다면 왜 그 차이가 발생하는가? 우리는 앞서 설명한 인간으로 태어나 존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후 얻어지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취 존엄성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한다. 빈곤, 결핍 또는 사회적 및 정치적 조건에서 비롯된 성취 존엄성의 불평등의 경우에 따른 두 유형의 존엄성 간의 격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그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고 성취 맥락에서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충분한 최소기준까지 각 역량이 접근해야 한다.

인지능력 장애에서 비롯된 타고난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취될 수 있는 존엄성의 불평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문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적역량의 선천적인 적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배포되는지와 상관없이 실천이성과 같은 특정 역량의 최소기준을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¹¹⁷⁾ 그런 경우 누스바움은 보호자가 그녀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역

116) Nussbaum, 2011, pp.31.

117) Nussbaum, 2006, pp.192~199.

량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사람들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시립들에 대한 단일목록과 동일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인지장애인들의 최소수준의 기준과 역량목록의 요소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격렬하게 거부한다. 후견인의 역할은 한 사람의 ‘무능’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핵심 역량에 대한 그 사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¹¹⁸⁾

정의의 대상에 있어서는 선천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누스바움이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합리적 이성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 외국인 모두 계약으로 인한 사회합의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들이 배제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배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들이 포함된 계약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로 인식될 수 있다. 모두 존엄하니까 각자의 역량에서 보이는 차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간의 기능의 특징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누스바움의 대답은¹¹⁹⁾ ‘처음부터 윤리적이고 평가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특징인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 있지만 모두가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형태의 기능은 개개인이 번영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과 인간 존엄성의 관련성은 인간이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완전한 인간 생명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간 공동체에서의 참여와 기능의 특정 규범-은 다음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종의 규범과의 관련성은 사람들이 번영하거나 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공동체를 정의한다는 것이다.¹²⁰⁾ 누스바움의 선천적 존엄성과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을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누스바움은 그녀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칸트의 존엄성과 인격의 개념을 비교한다. 그녀는 칸트의 존엄성 개념을 스토아학과 사상에서 인간의 개인성을 구체적으로 특징짓는 것은 도

118) Nussbaum, 2006, pp.192~199.

119) Nussbaum, 2000, p.28; 2006, p.347.

120) Nussbaum, 2006, p.365.

덕적인 이유와 자유를 위한 능력이며, 우리의 동물성과 자연적 필요성의 영역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¹²¹⁾

대조적으로, 누스바움은 그녀의 존엄성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주의 전통 안에서 확인한다. 이 전통에 따르면 누스바움이 특성화한 것처럼 인간의 합리성과 도덕성은 인간의 동물성, 취약성 및 신체적 필요와 얽혀 있다. 우리의 존엄성은 단지 어떤 종류의 동물의 존엄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필 사자가 아니면 취약하지 않은 존재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¹²²⁾ 게다가 이 전통에 따르면, 사회성은 인간생활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다.¹²³⁾ 인간이 된다는 것은 존재와 번영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고, 여기에는 돌봄(care)과 의존성(dependency) 그리고 합리적 능력이 인간 생활의 과정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한다.

누스바움은 반복적으로 그녀의 존엄성 개념은 포괄적인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한다.¹²⁴⁾ 그녀는 또한 존엄성의 부합한 삶과 ‘선의 풍부하고 도덕적인 설명’의 관념의 아리스토텔레스/마르크스주의적 인간관과 롤스와 칸트의 인간관, 그리고 그의 선의 얇은 이론을 대조하여 모든 역량의 버전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그러나 인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마르크스주의 개념이 사람에게 대한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또한 롤스의 모든 특징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것은 번영하거나 존엄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다. 그녀의 이론을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첫째로, 그리고 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치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녀의 목록에 있는 역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다.¹²⁵⁾

누스바움의 ‘직관적’ 개념의 인간존엄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121) Nussbaum, 2006, p.355.

122) Nussbaum, 2006, p.132.

123) Nussbaum, 1992.

124) Nussbaum, 2006, p.155; Nussbaum, 2011 참조.

125) Nussbaum, 2006, pp.153~154.

서 뚜렷한 인간형태의 삶을 만드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누스바움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들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동물로 가정한다.¹²⁶⁾ 그것은 사람이나 인간 본성에 관한 어떤 논쟁적인 형이상학적 가정 또는 특정한 포괄적인 종교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 아니면 모든 사회¹²⁷⁾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원칙으로 설명된다. 이 직관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정치적 원칙 즉 역량목록은 “자유로운” 부분적 도덕 개념의 일부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¹²⁸⁾

그 원칙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다른 국가와 입법기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¹²⁹⁾ 이러한 원칙은 인권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¹³⁰⁾ 직관적인 존엄성 개념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교 및 도덕적 개념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¹³¹⁾ 누스바움은 그녀의 존엄에 대한 개념이 위의 모든 방법에서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포괄적 관점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적인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첩적 합의에 관한 정치적 정당성은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삶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¹³²⁾’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첩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엄의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드는 재화나 역량에서 실현된 직관적인 존엄성 개념이다.

126) Nussbaum, 2006, pp.85~86

127) Nussbaum, 2011, p.111.

128) Nussbaum, 2011, p.109.

129) Nussbaum, 2011, pp.108~109.

130) Nussbaum, 2011, p.109.

131) Nussbaum, 2011, p.109.

132) Nussbaum, 2006, p.154.

2) 역량존중의 동기로서의 성취(achievement) 존엄성

한편 모두가 존엄하나 존엄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모두가 인간으로 존엄하다면 왜 그 차이가 발생하는가? 우리는 앞서 설명한 인간으로 태어나 존엄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후 얻어지는 존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기능과 역량의 구분을 제안한 의도는 바로 우리 모두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은 보편주의를 위한 최소기준의 척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정의의 대상에 있어서는 선천적 존엄성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합리적 이성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 외국인 모두 계약으로 인한 사회합의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들이 배제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배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들이 포함된 계약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로 인식될 수 있다. 모두 존엄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에서 보이는 차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존엄성-역량의 분류 없는 환원적 혼용은 존엄성 가치가 단순히 목록을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기준마련을 위한 장치로 본다. 앞서 언급하듯이 위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둘을 분류해도 존엄성에 따라 목록의 동기를 제시하는 역할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서양적 가치로 보이는 인권에 대한 대안으로 존엄성이 그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도 존엄성 개념은 존재했으며, 각 국가마다 존엄성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최소기준 마련으로 존엄성 가치의 개념이 점차 통일성을 이룬다면, 상대주의와 보편성의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스바움의 관점에서 존엄성은 핵심역량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불가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스바움은 역량에 우선하는 존엄성 있는 존재를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역량이 인간존엄성의 구성요소인가? 한편에서 그녀의 언어가 존엄성은 근본적이며 역량에 우선하고, 핵심역량목록의 제공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고 지적한다. 누스바움에게 “역량 접근법은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정치적 존엄성 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¹³³⁾ 역량접근법은 존엄성이 핵심역량을 초래한다는 인정 하에, 존엄성 관념에서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미 보유한 존엄성에 가치 있는 삶을 초래한다. 역량의 구성에 있어 존엄성의 근본적인 역할을 보여주고자 누스바움은 “핵심역량의 정치적 원칙은 존엄성 이해의 추상적 형태를 만들고 그 내용을 채운다.” 역량이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한다면, 존엄성은 역량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엄성의 인식은 역량의 뿌리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에 필요한 존중의 최소한으로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의해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핵심 인간의 권리(entitlement)의 주장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법을 제시한다.

3) 소결

누스바움의 저작 『인간의 존엄성과 정치적 권원』*Human Dignity and Political Entitlements (2008)*에서 존엄성에 대한 설명은 자연세계의 ‘정당한’ 부분이며 합리성과 다른 인간의 역량의 날카로운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Nussbaum, 2008: 352). 누스바움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은 인간 공동체의 기초가 인간 개개인의 실천이성과 도덕적 선택의 가치에 있다고 믿는 스토아학파(the Stoics)에 대한 공통된 견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합리성과 자율성은 존엄성 소유와 관련된 유일한 능력이 아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삶을 특징짓는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수많은 영역에서의 ‘주요 인간의 삶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완전하고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은 주요 인간의 생명 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의 자유로운 종단을 가진 인간 부모의 모든 자녀에 의해 소유된다. 한편 누스바움은 예를 들어 지속적인 식물 상태의 인간에게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을 살고자 하는

133) Nussbaum, 2006, p.180.

아무 노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심한 정신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은 포함한다. 그 중 일부는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읽거나 쓸 수는 없으며, 그 중 일부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한 도전을 받는다.”¹³⁴⁾

극심한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합리적 권력을 제한 받지만 사랑과 놀이, 그리고 항상 광범위한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애정 어린 관계의 맥락에서 존재할 때 특징적으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⁵⁾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이 높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리성 또는 ‘필요와 노력의 유형이 우리의 동물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물성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 자체와 인간 욕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으로 존엄성을 찾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¹³⁶⁾ 존엄성이 인간 필요에 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호흡하거나 배설할 필요가 있는 존엄성을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필요’ 자체가 역량이 아니지만, 누스바움의 존엄성의 주요 원칙으로 여기는 역량이다. 즉 ‘기본’(훈련받지 않은), ‘내적’(훈련된) 역량과 ‘결합’역량¹³⁷⁾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노력’과 ‘도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자율적 성향을 지니는 점에서 ‘역동적’인데, 그 자체가 문화적 적응이나 사회적 개입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우리의 역량 개발의 경향은 자율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성장과 전개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¹³⁸⁾ 한편, 존엄성을 중심으로 다루는 역량접근법은 누스바움의 목록이 그녀가 주장하는 대로 폭 넓은 합의를 누릴 수 있는지, 오히려 논쟁적인 특정 개념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역량접근법이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포괄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서 더 잘 이론

134) Nussbaum, 2006, p.187~188 참조.

135) Nussbaum, 2006, 3장 참조

136) Nussbaum 2008, p.363.

137) Nussbaum 2008, p.357.

138) Nussbaum 2008, p.356~357.

화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존엄성-역량의 분류 없는 환원적 혼용은 존엄성 가치가 단순히 목록을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기준마련을 위한 장치로 본다. 앞서 언급하듯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둘을 분류해도 존엄성에 따라 목록의 동기를 제시하는 역할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서양적 가치로 보이는 인권에 대한 대안으로 존엄성이 그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도 존엄성 개념은 존재했으며, 각 국가마다 존엄성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최소기준 마련으로 존엄성 가치의 개념이 점차 통일성을 이룬다면, 상대주의와 보편성의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스바움의 관점에서 존엄성은 핵심역량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불가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스바움은 역량에 우선하는 존엄성 있는 존재를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역량이 인간존엄성의 구성요소인가? 한편에서 누스바움의 언어는 존엄성은 근본적이며 역량에 우선하고, 핵심역량목록의 제공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누스바움에게 “역량 접근법은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정치적 존엄성 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¹³⁹⁾ 역량접근법은 존엄성이 핵심역량을 초래한다는 인정 하에, 존엄성 관념에서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미 보유한 존엄성에 가치 있는 삶을 초래한다.

역량의 구성에 있어 존엄성의 근본적인 역할을 보여주고자 누스바움은 “핵심역량의 정치적 원칙은 존엄성 이해의 개요의 형태를 만들고 그 내용을 채운다.” 역량이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한다면, 존엄성은 역량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엄성의 인식은 역량의 뿌리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누스바움은 “나는 인간 존엄성에 필요한 존중의 최소한으로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의해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핵심 인간의 권리(entitlement)의 주장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이들은 그 종에 맞는, 인간 종에 관계된 기본역량을 가지는지와 상관없

139) Nussbaum, 2006, p.108

이, 그 종에 맞는 존엄성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혹은 후견인을 통해서 그 종에 관련된 모든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어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존엄성은 독립적이며, 역량에 우선된다.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역량접근법의 기반에서 원칙의 원동력이 된다.

누스바움의 존엄성은 앞서 구분한 선천적 존엄성과 성취 존엄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역량과 존엄성 개념의 환원적 관계를 설정한 누스바움의 최소기준 및 역량목록의 제안에서 둘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역량분류 및 목록에 따른 다양한 존엄성과의 환원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기본역량을 보장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본역량을 보장받았을 때 인간의 삶은 존엄해지는가? 누스바움의 말은 전자, 즉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기 때문에 기본역량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이어지는 논의도 이 추측을 확인해준다. 그런데 그는 기본역량의 최저수준의 보장을 주장하며 기본역량의 실현이 곧 인간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어준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다. 누스바움은 지위 존엄성은 곧 본질적 가치이며, 우리는 타인에게 존중받을 가치로서의 성취 존엄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율성과 공동체적 가치의 논의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¹⁴⁰⁾

정리하자면, 존엄성은 역량의 근거가 되고, 핵심 역량의 목록에 내용을 제공한다. 두 개념은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기본역량은 존엄성을 요구하게 만들고, 존엄성 개념은 역량의 근거를 제시하여 결합역량이자 핵심 역량의 내용을 결정한다. 목록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침으로서의 존엄성 개념은 “두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존엄한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목록의 역량을 가짐으로써”¹⁴¹⁾ 더 나아가 누스바

140) 본인의 태도 상태 지위, 그리고 타인에 의한 존중. 권리의 근거 설명에는 Spiegelberg Human dignity: a challenge to contemporary philosophy (1971), pp.190~193. 참조.

움은 그녀의 목록의 “인간 존엄성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하고,”¹⁴²⁾ “인간의 존엄성에 관여한다.”¹⁴³⁾ 또한 이 근본권리는 “인간존엄성의 가치 있는 삶의 매우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전제조건”의 개념에서 ‘연루된’ 것과 ‘내포된’ 것은 동이하지 않다. 이러한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스바움의 이론적,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역량이 어떤 차원에서 존엄한 삶을 구성한다고 분별할 수 있다.

141) Nussbaum, 2006, p.162.

142) Nussbaum, 2006, p.155.

143) Nussbaum, 2006, p.161~162.

IV. 지구적 정의관으로서 역량 접근법에 대한 평가

핵심역량 목록은 인간 존엄성 개념에 관한 비판적·규범적 논증의 결과물이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핵심 역량 목록은 철학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다른 논증과 마찬가지로 비판과 반박의 대상이다. 둘째, 각 항목은 추상적 또는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가치다원주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에서 구체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각 국가는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셋째, 불완전한 도덕 개념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질 뿐, 문화와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개념과는 구분된다. 역량 접근법과 핵심역량 목록은 롤스의 표현을 빌려 ‘모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과 핵심역량 목록도 다양한 종교적·세속적 관점으로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지할 만한 모듈이다.¹⁴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넷째, 역량 접근법은 모든 시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10대 핵심역량의 증진에 있어 정부에 그 책무를 묻는다. 누스바움은 기능이 아닌 역량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들은 역량과 관련된 기능을 선택할지 안할지의 자유를 보장받고, 역량 관련 기능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동료 시민을 존중할 수 있다. 정치적 목표로서의 역량은 다원주의를 지지한다. 다섯째, 다원주의에 필요한 자유가 핵심역량 목록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¹⁴⁵⁾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요소는 어떤 사람의 고유 역량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과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자유나 기회의 결합역량으로 핵심역량 목록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 목록은 세계 어디서나 정치적 원리의 기초로서 정당화될 근거가 충분하다. 각 국가는 고유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지니지만, 어느 국가에나 존엄성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성을 공유한다.¹⁴⁶⁾ 이러한 관점에서

144) Martha Nussbaum, 2011, chapter 5. Cultural Diversity, pp.101~113 참조.

145) Nussbaum, 2011, pp.112~113.

핵심역량 목록은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영위하는 삶을 위한 지침의 기준이다. 누스바움은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목록 작성과 항목 선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만, 정당화와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역량 접근법은 정치적 목표로서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핵심역량 목록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이행 및 정책과정에서는 각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구체화 및 지속적 수정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1. 다원주의 사회의 보편적 가치규범 설정

‘보편성 테제(Universality Thesis)’는 권리와 존엄성의 보편성처럼 보편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편성 테제는 권리의 내용적 관점에서 “최소한인 자연법적 내용들”을 인간성을 보호하는 보편적 가치로 보고자 하였다.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위한 최소한 전제가 무엇인가, 혹은 최소한의 보호되어야 할 인간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보편성이 가치의 문제라는 점 때문에 특히 (정치)철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논쟁적 개념이다. 특히 전적으로 “정치적 사실(a political fact)”의 문제인지, 혹은 “문화적 사실”의 문제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필연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실질적 최소한의 보편규범들의 내용을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완전주의적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은 위와 같은 논쟁에서 제기된다. 첫째, 문화로부터의 비판이다. 이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화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이다. 개인들은 각인의 인격을 문화를 통해 실현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에 대한 존중은 곧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따라서 어느 한 문화의 신념과 도덕적 코드에서 도

146) Nussbaum, 2011, p.16~17

출된 기준과 가치를 인간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문화적 관행을 비판하기 위한 여지를 위해 보편적 규범의 내용들은 중요하다.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인간존엄성 개념을 보편적 규범, 지구적 정의 기준의 지침으로 활용하면 상이한 전통 속에 담긴 다양한 입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고, 각 지역의 전통에 전달되는 것은 자신을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데 능한 지배 집단의 견해에 불과할 때가 많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 내에서도, 전통적 설명에서 주로 도외시된 사회적 소수자들의 견해를 찾을 때 해당 문화의 견해에 관한 적절한 경험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사람의 선택은 다양하다는 생각,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정체성에 따른 선택이다. 즉, 다양성의 선으로부터의 비판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형식들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닌 사람들의 비판이다. 그러나 어떤 전통적 관행이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이외의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들을 발견해서 어떤 것이 수용할 만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후견주의(paternalism)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다.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인간존엄은 후견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전제한다. 공동체의 목적을 설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전통적 자유주의 이념에서는 국가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선에 대한 중립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에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국가는 상충하는 다원적 관점과 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의 개인과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¹⁴⁷⁾

다시 말해, 공동체적 가치는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한편 누스바움은 오히려 자신의 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관을 존중하게 한다고 반박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종교적 선이든 윤리적인 선이든 그 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기후를 형성하고 장려한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방향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보편성이란 욕구되어진 대로 발현되는 전체적인 기능방식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창출하는 보편성일 것이고, 그리고 독재적인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이용에 봉사하는 보편성일 것이다.¹⁴⁸⁾ 역량접근법의 후견주의(paternalism) 문제를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역량접근법이 완전주의 및 후견주의에 입각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¹⁴⁹⁾

특히 누스바움의 존엄성, 즉 정부의 역할은 기능이 아닌 역량의 보장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인 중립성(neutrality)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자신의 논의가 후견주의(paternalism)의 비판을 받더라도, 역량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¹⁵⁰⁾ 그녀의 ‘기본역량’의 목록은 형이상학에 반토대주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으로만 상상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자신의 역량들이 합당한(reasonable) 사람들에게 의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시민들은 자신을 통치하는 원칙을 지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정당성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그녀의 정치적 개념(political conception)을 의미한다. 또한 와서만(Wasserman)은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누스바움의 역량목록이 약점이라기보다는 두터운(thick) 정의론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⁵¹⁾

147) John Rawls,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7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 (1987), pp. 1~3.

148) Nussbaum, 2000, p.34

149) Claassen, 2003; Deneulin 2012.

150) Nussbaum, 2011, p.26.

누스바움의 정의론은 두 가지 목적에 주목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헌법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지구적 정의 담론에 새로운 가치체계로서의 규범이론으로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역량 접근법 자체는 포괄적인 도덕 이론이 아닌, 기본적 권한들에 관한 정치 원리다.¹⁵²⁾ 즉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이론으로, 이 원리는 기존의 사회계약설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적 권리의 실행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영역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적 논의이지만 동시에 모든 대상들에게 보편적인 존엄성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협상의 탁자에 앉을 때,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실질적인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누스바움의 설명은 애초에 완전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론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만약 어떤 사회가 역량의 임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⁵³⁾ 따라서 정의론의 측면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는 개인의 다양한 맥락에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수준 이하일 경우 지원해야 하지만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여건에서는 개인은 자기실현의 목적과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다.¹⁵⁴⁾

이러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적어도 각인의 선 관념의 형성과

151) Wasserman, 2006: 229

152) Nussbaum, 2006, pp.69~76.

153) 이에 대하여 누스바움은 모든 시민이 일정수준의 임계점을 넘은 후에도 제기되는 정의 및 분배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다고 말한다. Martha C. Nussbaum, 2006, p.75.

154) Martha Nussbaum, 1990, p.288.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다양한 실현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 목적으로서의 역량(capabilities as goal), 자유와 실천이성(liberties and practical reason),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실행의 제약(constraints on implementation)”을 들고 있다. Nussbaum, 2000, p. 105.

실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피하면서 각 역량의 발휘를 위한 사회적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공적 개입의 여지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개입과 관련하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발생시키는 도덕적·사회적 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함이 있다. 특히 누스바움은 열 가지 핵심 역량들이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국가의 헌법적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리들의 실제 이행에서는 해당 국가의 내부 정책에 맡겨야 한다는 실행상의 제약을 인정한다. 사실 역량 접근법은 최소수준 이하의 시민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동반해야만 실제적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은 최소수준 이하의 역량을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만한 법적 권한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만 권리를 결합역량으로 이해하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단순한 동어반복에 그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2. 정의의 주체 및 내용의 확장

1) 인간관의 재해석

앞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칸트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상이 결합되어 존엄성의 근거, 즉 인간관의 기준을 합리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 상호의존성을 또 다른 요소로 추가하였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논의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및 범주의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왔다. 반면 동물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따라서 최근 학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논의에서 누스바움은 어떠한 인간관을 상정하고, 어떤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논의의 틀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역량 중심 접근법은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제거하여 인식론적 차별의 토대를 제거할 수 있다. 역량 중심 접근법이 전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상처받기 쉬운 존재(human vulnerability)라는 점에서 의존적인 동시에 독립적인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존재이다.¹⁵⁵⁾ 상호의존적 인간관에 따르면, 장애인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이나 비-장애인이라고 명명된 사람들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존적인 동시에 독립적이다. 역량 중심 접근법의 상호의존적 인간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 의존적이라는 의미의 사회적 약자(the socially vulnerable)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재분류에 따르면 장애(disability)는 사회적 약자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 전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해 인식론적 차별의 토대가 제거될 수 있다. 데브라 캐플란(Deborah Kaplan)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자신들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는 사회 구조를 갖춘 인정(recognition)과 존중(respect)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주장한다.¹⁵⁶⁾

155) Nussbaum, 2011, p. 127.

156) Deborah Kapla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Perspective of the Disability

역량접근법을 취할 경우, 합리적 인간을 ‘정상’(normal)으로 상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 다른 역량을 가진 인간들을 상정한다.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단지 다른 부류와 정도의 역량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볼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라는 라벨이 붙을 필요가 없다.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학생 모두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할 존재들로 볼 뿐, 특정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¹⁵⁷⁾ 의학적인 관심을 요하는 것은 그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개인성”(individuality)에 기한 것이다. 해당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특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¹⁵⁸⁾

인간다운 삶이라는 개념은 열려있는 개념이고, 이를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봤을 때, 상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고 국가가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 최소한의 접근을 할 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2) 분배적 정의와 인정의 정의를 포괄하는 논의

사회정의 담론, 나아가 지구적 정의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배적 정의 혹은 인정의 정의와 같이 하나의 단편적인 담론의 방향은 도전받고 있다. 한편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분배적 정의와 인정의 정의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토마스 포기(Thomas Pogge)¹⁵⁹⁾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¹⁶⁰⁾는 역량접근

Community,” *Journal of Health Care Law & Polity* Vol. 3 (2000), pp.3-7.

157) Nussbaum, 2006, p.210.

158) Nussbaum, 2006, p.221~222.

159) Pogge, 2002.

160)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 Philosophical Exchange,” *Journal of Sage*, (London: Verso 2003),

법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정 개념(recognition) 또는 존중 개념(respect)을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역량이론가들이 이런 비판에 대응하면서 논쟁을 형성해오고 있다.¹⁶¹⁾ 역량접근법이 인정 개념을 포함할 수 없고, 오히려 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개인은 역량접근법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연적 특성이 열등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선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포기의 비판은 역량접근법의 핵심 특징인 인간의 다양성 개념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역량개념은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이기도 한데, 포기는 이를 간과했다. 역량은 각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구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도달할 실질적 자유 즉 진정한 기회 그 자체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⁶²⁾ 역량을 도구적 가치로만 이해할 때는 부유하지만 금식한 사람에게도 영양 상태를 보충하기 위해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역량을 본질적 가치로 이해하면, 금식한 사람은 자신의 다른 가치관을 위해 부실한 영양 상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굶주린 사람과 구별된다. 역량 개념을 도구적 가치로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 오직 분배 원칙만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역량을 본질적 가치로 간주하는 측면에서는 분배 원칙이 아닌 다른 방식 - 예를 들면 역량 이행(empowerment) - 으로도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이런 경우는 포기가 비판했던 자존감 훼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¹⁶³⁾

누스바움은 자신의 핵심역량 개념을 토대로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물질적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센과 마찬가지로

p.100,

161)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 개발 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2010), p. 5.

162)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NewYork: Knopf, 1999), p.75

163) Lori Keleher, “Can Pogge’s Evaluation of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apability Approach: Enhancing Human Security* (2004), pp.5~7. 대부분의 역량 옹호자들은 역량 개념이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질적 가치라는 점을 인정한다. 더욱이 그들은 본질적 가치는 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분배 이외의 방식으로도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가지로 역량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센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분배 정책은 역량이 아닌 기능(functioning)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¹⁶⁴⁾ 장애인은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와 관련된 분배 과정은 자유로운 선택 보다는 강제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스바움의 분배 정의론은 먼저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존감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포기는 역량접근법이 자연적 우연성에 입각한 차이를 다양성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서열화된 등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하다고 비판한다.¹⁶⁵⁾ 개인은 역량 중심 접근법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연적 특성이 열등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선별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자연적 특성에 대해 스스로 “정상성”에서 벗어나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장애인의 자존감을 훼손시킨다.

더욱이 이러한 역량 중심 접근법은 역량 강화 과정 즉 분배 과정에서도 장애인을 폄하하고 의존적 존재로 배제한다. 누스바움은 비계약론적 방식을 통해 제시되는 장애에 대한 자신의 역량 중심 접근법은 정당화와 논의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배 과정에서는 롤스의 정의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¹⁶⁶⁾

앞 절에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들이 장애인을 의존적이며 결여된 존재로 폄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이 누스바움의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장애인은 역량이 부족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앞 절에서 “정상성” 개념을 토대로 보상 중심적 정의론이 제기했던 주장과 동일하다.¹⁶⁷⁾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누스바움의 비계약론적 정의론은 토대가 되는 역량 중심

164) Nussbaum, 2006, p.171.

165) Pogge, 2002, p. 205.

166) Nussbaum, 2006, p.179.

167) Nussbaum, 2001a. 참조.

접근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목록과 기능(functioning)에 대한 강조로 인해 계약론적 정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3. 권리 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보완

한편 역량접근법은 인권접근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역량접근법에 대한 앞선 논의가 인권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역량접근법과 인권접근법 밑바탕에는 사람에게 핵심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 핵심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¹⁶⁸⁾ 특히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은 「세계인권선언」 등 무수한 기념비적 인권 문서가 인정하는 인권과 실질적으로 겹친다. 사실 역량은 제1세대 인권(정치, 시민적 권리) 및 제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량과 인권 모두 문화를 교차 비교할 근거를 제공하고,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인권접근법은 젠더 문제나 인종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역량접근법은 세련된 인권접근법이 그렇듯 이들 결합으로 메우려고 애쓴다.

역량 접근법은 20세기 이래로 도덕철학과 윤리학 영역의 규범적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와 인권 논의에 기여를 한다. 권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입장들 사이의 깊은 철학적 불일치로 인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누스바움은 권리 개념이 갖고 있는 불분명한 성격을 역량 개념이 보충해주고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⁹⁾ 근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역량, “즉 가치 있는 기능들(functioning) -상태들과 행위들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권리 논의가 서구적이라는 전통적 비판에 대해 대응할 토대를 마련해 준다. 비록 권리 개념이 서구 계몽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존엄성과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 문화적 보편성 속

168)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인간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Nussbaum, 2011, p. 83.

169) Nussbaum, 2003, p.37.

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은 인권 주장의 근거를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최소한의 행위주체성이 있는가에서 찾지, 이성 등 사람의 구체적 속성을 갖췄는가에서 찾지 않으므로 인지장애인의 인권도 정상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또 권리와 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핵심역량을 부분적으로 존엄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보다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권리 접근법은 통합 이론이라 할 수 없지만, 역량 접근법은 통합 이론이 되려고 노력한다.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 인권 개념에 대해 철학적으로 명확하고 명료한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표준적 인권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은 인권 주장의 근거를, 사람으로 태어났는가(선천적 존엄성), 최소한의 행위주체성이 있는가에서 찾지, 이성 등 사람의 구체적 속성을 갖췄는가에서 찾지 않으므로 인지 장애인의 인권도 정상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또 인권 접근법보다 인권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관계를 훨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핵심역량이 인간의 근본권리라는 생각은 의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근본권리가 존재하는 순간 근본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 정치구조가 일차적으로 국민 근본권리의 최저수준 즉, 핵심역량목록의 최저수준을 적절하게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가난한 국가는 부유한 국가의 도움 없이는 모든 역량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역량 접근법은 여러 면에서 표준적 인권 접근법을 보완해준다. 그러나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요청이 권리담론을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정의론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도출된 역량 목록을 제도적 담론으로 연결시키는 논의들을 좀 더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핵심역량들이 중첩적 합의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누스바움의 답은 불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V. 결론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직관적인 존엄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역량접근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범적 기준의 설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존엄성 관념을 단일한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취하는 주요한 논리를 어떤 관계에 따라 어떤 논리를 따르는지를 정리한다면 정의담론의 보편적이고 특수적인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존엄성이란 개념에 상정되었듯이, 모든 인간은 제약받지 않는 고유 영역이 있다. 이와 같은 상태 존엄성은 지구적 정의 공간에 장애, 국적 등의 차이를 보이는 요소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기본 역량의 개발을 위한 교육과 같은 외부조건에 권리를 가진다. 이후 사회정의의 최저수준의 보장을 위한 핵심 역량 목록은 후천적 존엄성으로 정당화된다. 이 경우 인간이기 때문에를 넘어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및 결과로 나타나는 성취 존엄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는 최저수준의 보장을 위한 공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었다. 존엄성은 역량에 우선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냐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¹⁷⁰⁾

둘째, 누스바움의 이론은 지구적 정의 공간에 낙인이 찍힌 사회적 약자들을 동등한 정의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셋째, 그녀는 적절한 공적 개입은 인간의 기본역량 중 일부를 길러내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후견주의는 옹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누스바움의 규범적 정의론으로서 역량 접근법 논의는 오늘날 지구적 정의 양상의 변화에 구조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존엄성 개념에

170) Nussbaum, 2006, p.162.

대한 논의는 분명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를 도구적으로 실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규범적 성격이 핵심 역량에 매개되어 사회정의의 최소기준의 실현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지구적 정의 담론에서 보편성과 다문화주의의 균형의 토대를 마련해주며, 정의의 내용과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규정하려는 개념적, 이론적 접근이 특정 정의의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분석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누스바움의 정의론은 기존의 논의를 이끌었던 이론들을 부정하고 대체하려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이론적 관점에서 역량접근법과의 결합을 통해, 경쟁적 입장들이 공유하는 토대(framework)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행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의 존엄성 개념의 역할에 대한 분석적 검토는, 단순히 누스바움의 존엄성을 규범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 그것은 사상사적, 이론적 차원에서, 중첩적 합의의 결과물이 아닌, 향후 실천적 차원에서 역량의 논의는 중첩적 합의를 통한 수정과 제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의 고찰에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존엄성 개념을 역량 개념으로 환원해서 생각한다면, 정의의 공간에서 어느 누구든 배제되어야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접근은 정책으로 구체화될 만한 논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의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이 직면한 무수한 문제에 대해 독자적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역량 접근법은 지금까지 각각 고립적으로 연구되던 여러 문제를 바라보는 통일된 새로운 관점을 약속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게 된 긴급한 정의 문제에는 사회적 약자, 여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문제다. 이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정의의 주체로 세우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천 측면 모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역량 접근법이 실제에 적용되어, 당면한 현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한다. 정책적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역량 접근법의 교육적 접근에 대한 논의로 대신할 수 있다.

역량 접근법은 문제를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떻게 각인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량 접근법은 셴과 누스바움에 의해 그 이론적 필요성과 철학적 정당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역량 접근법은 역량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데 이때 자유와 후견주의 사이의 긴장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자신의 논의가 후견주의(paternalism)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역량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여, 개별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듯하다.¹⁷¹⁾

핵심역량 목록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정치철학적 물음과 관련된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이 아닌 사회적 기본 구조에만 적용되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주장한다.¹⁷²⁾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각각이 자신만의 가치관, 즉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며 이러한 방식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만약 특정한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식적 측면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이 갖는 가치관을 침해하기 때문이다.¹⁷³⁾ 셴은 자신의 역량 접근법이 구체적인 목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적 추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을 통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지표로 참조하여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의 이론적 독창성을 확인하고 지구적 정의 담론의 이론적 틀로 제시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분배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론의 중간 어디쯤에 놓여 있는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실질적인 정의이념이 무

171) Nussbaum, 2011, p.26.

172) Rawls, 1985, p.223.

173) 로빈슨은 이러한 특정한 역량목록 제시는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Robeyns, 2009.

엇인가를 성찰하게 하고 특히 오늘날 인간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성찰점을 제공한다. 인간존엄 이념은 평등한 가치의 이념을 담고 있으며,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존중은 운에 의해서 분배되는 특성 때문에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누구의 이론보다 누스바움의 존엄성 기반 역량접근법은 “각 개인을 목적으로 추구하라”는 명령을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 가족 혹은 국가보다도 각 개인의 역량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⁴⁾

그리고 역량접근법의 핵심역량 목록들은 완전한 정의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역량의 요소들이 최소기준 수준이라는 이념을 제공한다. 즉 그 아래서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최소기준인 것이다. 사회의 목적은 바로 시민들을 이러한 역량의 최소기준 상위에 올려놓는 데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은 항상 각 개인의 역량 증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량접근법은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들 간의 비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인간존엄성이란 개념에 상정되었듯이, 종교와 문화를 떠나 전 지구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이후 세계화의 진행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구적 차원의 교류는 빈곤과 테러의 어두운 면과 경제 통신 발달이라는 이면 속에서 국가를 초월한 논리 체계가 요구되었다. 국가, 또는 특정 문화의 고유한 수준에서 존엄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요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스바움의 존엄성 역량 접근법을 통해서 지구적 정의관 확립에 공통된 보편규범을 제시하는 그녀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모호한 언어의 특징 때문에 누스바움의 사상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존엄성 관념을 분석하여 지구적 정의론을 위한 지침들을 유추하고 적용하고자 했

174) Nussbaum, 2000, p.74.

다. 누스바움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에서 합리성에 기초하여 일부를 배제시키는 것은 상호이익 관점에서 이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며 선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자존감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역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의 존엄성 역량접근법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누스바움의 정의관을 분석하여 얻을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나 결정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주입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삶의 방식을 옹호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까지 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권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지평에서만 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도덕적 대상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되도록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구적 수준의 부정의는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최소합의에 대한 상호이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이 전 지구적, 혹은 초국가적 최소합의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기존의 전통문화나 민족의식과 모순관계에 놓여있을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량의 최소수준과 존엄성 실현의 가치는 불가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실천적 논의에 활용하기에는 핵심역량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실천적 제안을 제시하기에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누스바움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함은 이 이론이 상당부분 철학적·이론적 근거 제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량을 통해 지구적 정의의 토대를 제시하는 일반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실천적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량 접근법은 하나의 아젠다로서 의의를 찾는 것으로도 이론적 정당화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1. 누스바움의 주요 저작

- Nussbaum, Martha. 1988. "Nature, Function, and Capability: Aristotle on Political Distributio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Vol. 1.
- _____. 1990a. "Aristotelian Social Democracy." in Douglass, R. Bruce, Gerald M. Mara, and Henry S. Richardson (eds.), *Liberalism and the Good*. New York.
- _____. 1990b.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Fordham Law Review*, Vol. 66, No. 2.
- _____. 1992. "Human Functioning and Society Justice: In Defense of Aristotelian Essentialism." *Political Theory* Vol. 20.
- _____. 1993. "Non-Relative Virtues: An Aristotelian Approach." in Sen, Amartya. (ed.),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8. "Political animals: Luck, love and dignity." *Metaphilosophy* Vol. 29, No.4.
- _____.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in *Feminist Economics* Vol. 9 No. 2-3.
- _____. 2004. "Beyond the Social Contract: Toward Global Justice."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4.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_____. 2006.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 "Human Dignity and Political Entitlements." In *Human Dignity and Bioethics: Essay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gton, D.C.: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_____. 2011. *Creating Capabilities*.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 국내문헌

김연미. 2004. "일반 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다원성-M. Nussbaum의 기능적 능력 관념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제1권 제2호.

목광수. 2010.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개발 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철학』 제 104호.

정태일. 2011.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평화연구』 제 16집 제 1호.

김연미. 2009. "권리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시험적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 26집, 제 4호.

이상호. 2014.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 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17호.

허성범. 2013 "역량과 인권: 센과 누스바움." 『시민인문학』 제 25호.

3. 국외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 Christine M, Korsgaard. 1996.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cker, David. and Ingrid Robeyns. 2010. *Capability and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workin, Ronald. 1985. *A Matter of Principle*. OUP Oxford.
- _____. 2011. *Justice for Hegehogs*. Harvard University Press.
- Feldman, Noah. 2007. *Divided by God: America's Church-State Problem--and what we should do about it*.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 Kymlicka, Will.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 Raz, Joseph. 1986. *The Morality of Freedom*. Clarendon Press.
- Rawls, John.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sen, Michael. 2010. *Dignity: Its history and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1992. *Inequality Reexamined*. New York and Cambridge, MA: Russell Sage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york: Knopf.
- Taylor, Charles.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 논문

- Alkire, Sabina. 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1
- Alison Jaggar, 2006, "Reasoning about Well-Being.: Nussbaum's Methods of Justifying the Capabilitie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4. No. 3

- Anderson, Elizabeth. 2010. "Justifying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Justice." in Harry Brihouse and Ingrid Robeyns (eds.), *Measuring Justice: Primary Goods and Cap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orno R. 2003. "Human Dignity and the UNESCO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Discussion paper. Cardiff Centre for Ethics, Law and Society*.
- Beitz, Charles R. 2013. "Human Dignity in the Theory of Human Rights: Nothing but a Phrase?"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41, No. 3.
- Bernardini, Paella. 2010. "Human Dignity and Human Capabilities in Martha C. Nussbaum." *Iustum Aequum Salutare* Vol. 6.
- Claassen, Rutger. and Düwell, Marcus. 2013. "The Foundations of Capability Theory: Comparing Nussbaum and Gewirth." i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6, No. 3 <http://www.rutgerclaassen.nl/wp-content/uploads/2011/02/Claassen-Duwell-The-Foundations-of-Capability-Theory-pre-print.pdf> <자료검색일: 2017년 5월 8일>.
- Crocker, David. 1992. "Functioning and Capability: The Foundation of Sen's and Nussbaum's Development Ethic." *Political Theory*, Vol. 20
- Dean, Richard. 2009. "The formula of humanity as an end in itself." *The Blackwell Guide to Kant's Ethics*.
- Deneulin, Severine. 2002. "Perfectionism, Paternalism and Liberalism in Sen and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 14, No. 4
- Feldman, David. 1999.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Part I." *Public Law* Vol. 4 (Winter).
- Formosa, Paul. and Mackenzie, Catriona. 2014. "Nussbaum, Kant

- and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Dignity.”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7, No. 5.
- Fraser, Nancy, Axel Honneth and Joel Golb.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 Philosophical Exchange.” *Journals of Sage*. Vol. London: Verso.
- Gewirth, Alan. 1998. “The Community of Rights.” in Edgar Morscher, Otto Neumaier, and Peter M. Simons (eds.), *Applied Ethics in a Troubled World*.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Harris, John. 1998. "Cloning and human dignity."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7, No. 2.
- Hartley, Dean. 2009. “Critiquing Capabilities: The Distractions of a Beguiling Concept.” *Critical social policy*, Vol. 29, No. 2.
- Hayry, Matti. 2004. “Another Look at Dignity.” *Cambridge Quart Healthcare Ethics*. Vol. 13, No. 1.
- Johnson, J. Prescott. 1971. “Human Dignity and The Nature of Society,” *World Futures: Journal of General Evolution* Vol.10, No.3-4.
- Kaplan, Deborah. 2000.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Perspective of the Disability Community.” *Journal of Health Care Law & Policy* Vol, 3.
- Keleher, Lori. 2004. "Sen and Nussbaum: Agency and Capability-Expansion." *Ethics and Economics*, Vol. 11, No. 2.
- MacIntyre, Alasdair. and Alasdair C. Macintyre. 1988.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Vol. 239. London: Duckworth.
- Macklin, Ruth. 2003. “Dignity is A Useless Concept.” *BMJ*, Vol. 327.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00789/>
(자료검색일: 2017년 5월 6일)

- Marokova, Asya. 2011. "The Concept of Dignity in the Capability Approach: A personalistic Perspective." submit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Values of the Human Person: Contemporary Challenges*. (June)
- Meyer, Michael J. 1987. "Kantian Dignity and Modern Political Thought." *History European Ideas*. Vol. 8.
- _____. 1989. "Dignity, Rights, and Self-Control." *Ethics*. Vol. 99, No. 3.
- Muders, Sebastian. 2016. "Natural Good Theories 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25, No. 2
- Neal, Patrick. 1990.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or Metaphysical?" *Political Theory* Vol. 18, No. 1.
- Nelson, Eric. 2008. "From Primary Goods to Capabilities: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Problem of Neutrality." *Political Theory* Vol. 36, No. 1.
- Paust, Jordan J. 1984. "Human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A jurisprudentially based inquiry into criteria and content." *Howard LJ* Vol. 27.
- Pogge, Thomas. 2002. "Can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Philosophy & Public Affairs*.
- _____. 2010. "A Critique of the Capability Approach." in Harry Brighouse and Ingrid Robeyns (eds.), *Measuring Justice: Primary Goods and Cap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Hilary. 2008. "Capabilities and Two Ethical Theor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9, No.1
- Rawls, John. 1985.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 Metaphysical." *Philosophy & Public Affairs*.
- _____. 1987.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7, No. 1.
- Richardson, Henry. 2009. "Some Limitations of Nussbaum's Capacities." *Quinnipiac Law Review*, Vol. 19.
- Robeyns, Ingrid.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 1.
- _____. 2009. "Justice as Fairness and the Capability Approach." in Basu, Kaushik. and Ravi, Kanbur (eds.), *Arguments for a Better World. Essays for Amartya Sen's 75th Birthday*.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Spiegelberg, Herbert. 1971. "Human Dignity: A challenge to Contemporary Philosophy." *World Futures: Journal of General Evolution*. Vol. 9, No. 1-2.
- Wasserman, David. 2006. "Disability, Capability and Thresholds for Distributive Justice." In Kufman, Alexander (ed.), *Capability equality: basic issues and problem*. Routledge.
- Williams, Bernard. 1995. "Replies." in J.E.J. Altham and Ross Harrison (eds.), *World, Mind, and Ethics: Essays on the ethical philosophy of Bernard Willi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n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o Global Justice

Youkyeong Ja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adequacy of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o social and global justice, in particular, her conception of human dignity that plays a foundational role in the more recent version of Nussbaum's approach. She proposes that human dignity can serve as the basis of an entitlement to a set of capabilities that all human beings either possess or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However, despite its centrality to her approach, Nussbaum deliberately fails to specify 'the intuitive idea' of human dignity.

This thesis, considering whether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will serve as the justification for basic capabilities in accounting for the demands of global justice and its role as theoretical framework.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gnity and capabilities suggesting that Nussbaum's capabilities are intertwined with several conceptions of human dignity, whilst also identifying certain conceptions that meet several of her demands.

It is difficult, however, to show how dignity justifies her political insistence that the governments of all nation's should secure a minimum threshold of 'central capabilities' and what significant role it plays or what implications it has in her approach.

To critically examine the role that dignity plays in Nussbaum's theory by, first analyzing her conception of dignity within the scope of her philosophical influences. Next, drawing on this account, I will investigate how both her basic and central capabilities are intertwined between two types of dignity, 'status dignity' and 'achievement dignity', or by similar distinction, 'dignity of status' and 'dignity of value.'

Finall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will draw the implications of Nussbaum's reason to account her dignity-based capabilities in favor of political liberalism to global justice discourse.

keywords : capabilities approach, human dignity, Martha Nussbaum, global justice

Student Number : 2014-20169